



유채화(Rapeseed, 학명 Brassica napus) Philadelphia 근교, PA

제25차 미주평의원회의 Keynote Speaker 오준 유엔대사 확정

6월24일-26일간 제13대 서울대 미주총동창회의 본부가 위치한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제25차 평의원회의의 Keynote Speaker로 주유엔대사인 오준(문리대 불문과 74) 동문이 확정되었다.

2014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행한 북한인권 관련 연설이 SNS 동영상상을 통해 2030 세대들로부터 7080 세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으로부터 열광적 성원을 이끌어 내었다. 이 연설에서 오 동문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수백만명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수백 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먼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연설로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하며 유엔본부에서의 취임연설 '두 도시의 이야기'로 또 한번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 연설에서 오 동문은 "A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자



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큰 부담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주변에 아는 의사가 있는지 찾아 나선다.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를 부담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했다. 반면 "B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집을 살지 증권 시장에 투자할지 고민한다. 고기나 지방을 과다 섭취하여 성인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자녀들에게 국내든 해외든 최고의 교육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쓴다. 누군가 아프면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더라도 최고의 의사가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이 두 개의 도시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도시 모두에서 직접 살아봤기 때문이다. 실

제로 제 인생은 이 두 개의 도시에서 각각 반반씩 보냈다고 할 수 있다"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제가 옮겨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살던 도시가 A에서 B로 스스로 바뀌었다"고 덧붙여 청중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오늘을 두 도시로 비유한 이야기였다.

오 대사의 논지는 간접적이지만 명확하다. 그는 "A도시에서 B도시로의 변화를 우리는 '개발'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세계에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험한 변화는 다른 모든 국가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B도시의 사람들이 A도시의 사람들보다 반드시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난을 통해 얻은 실존적 지혜는 배고픈 상태에서 행복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식이 병들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기는 어렵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개발을 추구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6개국 대사들로 이뤄진 유엔 최초의 록밴드 'UN Rocks'에서 드러머로 활동하기도 하고, 수준급의 서양화 실력으로 해마다 직접 만든 연화장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오 동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어쩌면 또 하나의 감동적인 연설과 함께, 노련한 드러머의 솜씨까지 볼 수 있게 될는지 평의원회의의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 | | | | |
|-------|---------------------------------|-------|------------------------------------|
| 1 | 필라델피아 유채화/오준대사 Keynote Speaker로 | 12-13 | 지부: 샌디에고/조지아/워싱턴/뉴욕/토론토 |
| 2 | ENok 재미탈북자 돕기/ 북한 인권 돕기 | 14 | 음악: 장용복 오페라산책/미술: 박혜숙 문유도원도 |
| 3 | 미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Sultana, 미 선박조난사건 | 15 | 건강: 소두중/원고모집 |
| 4 | 분노의 계절/위안소의 위법성 | 16-19 | 기획특집: '나에게 가족이란' |
| 5 | 2016 총선 서울대생들의 선택은? | 21 | 신간: 박상희 바람의 얼굴/음악: 베토벤의 교향곡 |
| 6 | 브레인네트웍 심포지움 Abstracts | 22-23 | 인문산책/영화: 박준창 Life of Pi /QS 대학평가.. |
| 7 | 25차 평의원회의 스케줄/노벨상수상 교수초빙은 | 24 | 백정현 외로운 여정/여행기: 김명자 아이슬랜드 |
| 8-9 | My Story & Your History | 25 | 이달의 사진/독자의 광장 |
| 10-11 | 지부: 남가주/시카고/북가주 | 26 | IT: 스마트폰으로 사진 전송 |

[이슈]

시카고 ENoK 탈북학생들에게 장학금



재미탈북동포를 돕는 ENoK(Emanipate, Empower, and Embrace North Koreans)이 4월 3일(일) 중식당(House of Szechwan)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ENoK은 재미탈북동포들이 미국 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시카고 대학 근처에 Empower House라고 하는 Mini Boarding School을 운영하며 이들에게 숙식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카고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지역사회 후원금과 유성모(미대 82) 동문이 기증한 장학금 총 \$1,500를, 이날 ENoK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홍성환(Andrew Hong)군에게 전달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정승규(공대60)동창회장, 유성모 동문, 홍성환군, 정성일 관악클럽 회장, 탈북 학생들은 신변 노출 이유로 사진에 담지 않았음). 이외에도 김용주(공대 69) 전 동창회장과 이연경(사대92), 탈북학생 4 명을 포함하여 모두 10 명이 유성모 동문이 준비한 멋진 만찬을 가졌다. 마침 탈북여학생들은 미용과 간호 계열에 관심이 많아 비교적 상세하게 진로 지도를 할 수 있었고, 회장님들은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귀한 조언을 나누어 주었다.

WHO ARE ENoK? 2011년에 설립되어, 북한동포들을 자유와 힘을 실어주고, 포용하는 일을 하는 일리노이 주 등록, 501(C)3 승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WHAT DO WE DO? ENoK은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7명의 스태프와 4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탈북인들의 미국내 정착지원과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ENoK은 25명의 탈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 14명이 2004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통하여 미 정부로부터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미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총 197명(VOA 4월 자료) 중 7 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PROGRAMS 현재 탈북인들이 ENoK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service는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Medicaid, Food Stamps, 영주권, 시민권 신청등 서류 작성과 같은 case-specific servi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ENoK은 RealPal이라고 하는 일대일 멘토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인과 Pal이라 불리는 자원봉사자가 짝을 지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Empower House를 통해, 젊은 탈북인들에게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목표와 계획에 맞추어 진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어수업으로 시작하여, 다음은 GED (미국 고졸 자격시험)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준비를 일대일 과외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WHERE ARE THE PROGRAMS AVAILABLE?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는 ENoK이 미 전국에 확보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공하므로 탈북인들의 거주지로 인한 지리적 제한은 없습니다. 반면, Empower House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탈북인들은 다른 주에 살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시카고로 이주하였습니다

WHAT WE OFFER ENoK의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은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온 이민자 및 유학생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수 학생들과 주류사회의 일원들입니다. 우리는 탈북인들이 미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들: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필요한 소셜 네트워크로 인한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미리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ENoK은 탈북인들을 실제로 돕고 있는 최적의 단체입니다.

연락처: (224)500-7893, www.enok.org, admin@enok.org

Freedom,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is year, 2016,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my work promoting the freedom,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I came about this work unexpectedly: I simply started knocking on the door of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D.C. in 1996 requesting the opportunity to host defectors from North Korea in Washington, D.C. Back then and up until last year, the major focus regarding North Korea was their nuclear threat – too little attention was being paid to what was happen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 so much wanted to hear from a North Korean personally and as a result, I hosted the first defectors to ever speak out publicly in the United States about what was happening in North Korea: former North Korean army Colonel Joo Hwal Choi and former diplomat Ko Young Hwan. These two men testified about the starvation that resulted from the regime using food as a weapon, about the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hundreds of thousands were suffering, and the denial of human rights. Hosting these first defectors turned me into the human rights activist I am today.

I could not turn away from this issue although I confess I wanted to many times from the sheer frustration and hardship of this effort. I had really naively believed when I brought those first defectors to speak out publicly, hosted the first survivors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1998, organized the first of many Congressional hearings in 1999 on North Korea's gulag, and helped get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passed in 2004 that people would recognize tha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the most important issue. How can we stand silent in the face of such suffering and destruction of innocent human life? Back then in frustration, I cried out to God: Why have you made North Korea such a burden on my heart? God gently reminded me that He was simply answering my prayer as I had prayed to Him back in the 1990s that He would break my heart for what was breaking His heart.

In these two decades, my foundation has hosted hundreds of defectors, organized numerous Congressional hearings and events, rescued hundreds of refugees, helped establish and chair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nd made it possible for the defectors to broadcast every day messages of truth and hop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via Free North Korea Radio. More recently, we were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and the recent successful passage of the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in the U.S. Congress.

Today, we have made enormous progress in the recognition of the horrific human rights atrocities, but there has been little improvement in the lives of North Koreans, and the situation facing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is worse than ever before since Kim Jong-eun came to power. I do remain optimistic because there have been such dramatic changes inside North Korea ranging from their ability to have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to their establishment of private markets making them no longer dependent on the regime to survive.

We must be vigilant and at this moment, we are planning for our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April 24-30, 2016,



whose focus will be: what needs to be done to prepare for the day that the Kim Jong Eun regime collapses? The focus of North Korea Week will be to: 1) Send a powerful signal to the elites in North Korea that there is an alternative to the Kim Jong Eun dictatorship; 2) Give hope to the 23 million people of North Korea; 3) Provide North Korean defectors an opportunity to positively engage on plans for North Korea's future; and 4) Utilize the greatest resource the free world has to transform North Korea: the people who once lived under the Kim tyranny. We will broadcast every day the hopes and dreams of North Koreans living in freedom to those still living in tyranny in North Korea as we work for their day of liberation.

by Suzanne Scholte

Please join in our cause!
www.defenseforumfoundation.org

[칼럼]

미국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



백순 (법대 58)

7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확정되었지만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그리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등 4주자가 선두를 달리면서 각축을 벌여 왔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11월 첫 화요일 투표결정에 각 후보들의 지도력, 도덕성, 정치역량 등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미국을 앞으로 4년동안 이끌고 나아갈 비전, 즉 정치 및 경제정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정치계와 경제계에 논의되고 있는 4 선두주자들의 정치, 경제정책들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고자 한다.

1. 트럼프는 중상주의자(Mercantilist)이다
중상주의자란 국가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고 미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한다는 논리이다. 트럼프는

4월 26일에 펜실바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카네티컷 등 미 동부 주요 지역과 5월 3일 인디애나주 예산이 끝났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여주 안팎의 프라이머리가 남아있지만,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확정적이고 민주당에서는 클린튼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더욱 부자이기를 바라고,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미국의 돈이 들어 간다고 무시해 버리는 대외정책을 제창한다. 한미동맹에 미국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폐기하기를 주장하는 의견이 바로 트럼프의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들어내고 있다고 하겠다.



Getty Images

2. 크루즈는 일방주의자(Unilateralist)이다
크루즈는 미국이 냉전후기의 세계지도력을 그대로 발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지도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로날드 레건 대통령이 제창했던 자유시장주의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유시장주의정책이란 정부의 시장간섭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특히 정부의 세금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세금기반이 크게 넓어져 정부예산이 풍족해진다는 공급측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소식으로 전국이 흥분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Sultana 폭발 사건은 그늘에 묻히고 말았다. 또 신문은 4월 21일에 워싱턴을 출발 5월 2일 스프링필드 장치에 도착한 링컨의 장례열차를 보도하기에 바빴다. 전쟁에 지친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 사망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심리로 큰 작용을 했다. 또한 Titanic 승객들의 대부분이 부유하고 유명한 사회명사들이었던 반면 Sultana 승객의 대부분이 가난한 시골출신의 전쟁포로 귀환병이었다는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다. 이 사실은 Sultana의 또 다른 비극적인 면이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싸우다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포로가 되어 악명 높은 Georgia 주 Andersonville과 Alabama 주 Cahaba 포로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전쟁이 끝나 수백마일을 기차, 배, 그리고 걸어서 Camp Fisk 란 포로교환소에 도착했다가 마침내 연방관할 지역인 미시시피주 Vicksburg에 도착, 집에 데려다 줄 배를 학수고대하던 포로들이다.

이때 정부는 사병 1명당 5불, 장교는 10불을 지불하는 게 통례였다. 막대한 이익이 관계된 일이라 선주와 군부가 결탁해 실을 수 있는 배가 세척이나 있었음에도 2400명이 넘는 승객을 Sultana 한척에 몰아싣고 떠났다. Sultana는 Vicksburg에 도착 전 보일러에 금이가 새 보일러로 갈아야 했으나 다른 배에 승객을 놓치지 않으려는 선장 Mason의 요구를 보일러공이 받아들여 임시 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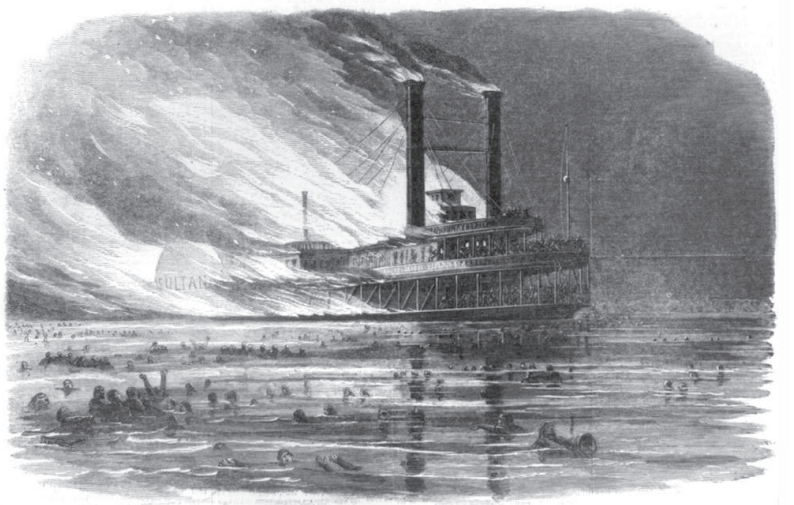
3. 클린튼은 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이다
미국이 세계, 국제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방주의적이지 아닌 다원주의적(Multilateralism) 접근을 계속 주도해야 한다고 클린튼은 제창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보호주의적인 접근보다는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주의정책이 미국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원주의적 대외정책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불가결한 국가(Indispensable Nation)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4. 샌더스는 평화주의자(Pacifist)이다
샌더스는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내세우며 자본주의가 불가결하게 결과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민주적 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창한다. 그는 국내적으로 억만장자들을 공격하고 뉴욕증권시장을 혐오하며 국제적으로는 미국제국주의(US Imperialism)적인 대외정책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년 11월에 누구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각자 제창하는 경제정책에 국민여론이나 의회에 의하여 일파의 변동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4년 미국경제정책의 큰 줄거리는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월 13일에 있었던 한국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가 경제정책의 실패때문인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성공이 그들이 제시한 경제정책때문인지 분명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나의 과묵한 탓인가?
<전미군노동성선임경제학자, 워싱턴버지니아대학교수>



질만 하고 Vicksburg 를 떠났다. Helena 라는 작은 동네에 쏘다가 떠났는데 이때 찍은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다. 배가 기운것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 Memphis에 들렀다가 석탄을 싣고 떠난 후 7마일 상류에서 보일러 뱃중 셋이 타지면서 불이나 불을 피해 강에 뛰어든 많은 사



EXPLOSION OF THE STEAMER 'SULTANA', APRIL 27 1865

람들이 익사하거나 체온손실로 죽었다.

사건발생후 세차례나 조사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말단 일개 대위, Frederick Speed만이 유죄로 판결되었으나 그도 군 법무감에 의해 무죄로 판결되어 단 한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과도하게 한배에 몰아 싣것금 만든 R.B. Hachth 중령은 그의 형 O.M. Hatch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책임을 면했다. 그의 형은 일리노이주 주정부관일 때 링컨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등공신이다.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칼럼]

분노의 계절



강창욱 (의대 55)

역사를 그득 채울만큼 있습니다. 직립원인시대부터 인간은 육식동물로서 짐승을 사냥하려면 상당한 공격성 감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생리 현상이 분노와 같은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ID라는 폭력의 천성을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ID는 공격적 폭력적 의욕을 지닌 본능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정신구조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육식본위일 때는 이런 정신 구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을 생산한다는 것, 담배질을 소화하는 위장이 우리 소화기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을 받는 곳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었습니다.

약 만년 전에 인간은 식물을 육식의 부식으로 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으며 사냥 아닌 농사로 식량공급에 안정성을 발견하여 농경시대(農耕)로 옮겨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부하는 문명의 개발(開發)이었습니다. 농경은 사냥과 달리 질서

와 예측이 가능해야 했고 하늘을 보고 비가 올 지 안 올 지를 예측하고 강우를 기원하기 위해 종교가 있어야 했고 거기에 따른 것이 문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행동, 특히 증오에서 오는 폭력같은 것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질서를 어긋려는 욕구가 있고 원초적 감정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질서를 만들려면 비질서는 징벌해야 했을 것입니다.

질서를 어기는 행동을 악(惡)하다고 하고 그 반대를 선(善)하다고 해서 이 분노를 억누르거나 조정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성인(聖人)들이 선(善)을 가르치려 노력하고 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목적이야 한다고 가르쳐 왔고 따라서 종교와 도덕과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것을 역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로의 폭행, 바이킹의 침략, 반달의 파괴, 근세에 와서 나치의 만행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마침내 중세 후에 성직자가 아닌 신학자들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사회적 존재이유를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이루어진 바탕을 재검토하면서 인간의 존재를 종교를 떠나 객관적 관점이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다시 불러들여 인본적인 관점으로 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 방법이라는 것을 이용해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을 새로이 정의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유태교단에서 파문까지 당하고 칸트는 신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다고 하며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인본주의 사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여 쇼펜하우워는 삶을 추구하려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 의지(Wille zu Leben)라고 했고, 프로이트는 이것을 ID라고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니체가 서구 교회의 포악한 지배를 비평하면서 인간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 힘을 기르려는(Will zu Macht) 의욕이 있고 상대를 지배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증오와 폭력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열씨구나 하고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즉 ‘우월한 인간(Ubermensch)은 약자를 희생해도 된다’며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말입니다. 니체는 예측하기를 20세기는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두 대전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구 위구석구석에 폭력의 과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선(善)의 추구를 가르치는 기독교에 대해서 니체는 노예의 윤리(Slave Morality)라고 비하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의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

대체 성경의 가르침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마 6:22)”,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마 4:5)”라는 가르침은 인간이 가진 근본 의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에서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희생은 신의 분노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신의 존재를 모를지라도 신이 있다고 믿고 그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것은 옳은 가르침이지만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약하며 공격성 증오같은 힘을 얻으려는 의욕은 늘 불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폭력의 경쟁은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니 진보라고 하며 물리적이 아닌 언어로서의 폭력이 퍼지기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좋은 도구입니다. 언어로 인간을 압박하는 것은 이미 조지 오웰의 “미래의 종(1957)”이라는 소설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니체 말이 옳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라고 봅니다. 그의 철학은 예고로, 또는 충고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 이 사회는 이 원초적 분노를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식축구, 권투, 특히 태극식 권투, UFC, 비디오 게임, 폭력을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표현한 영화 등, 그 예는 한이 없습니다. 막말을 쏟아붓는 어느 미대선 후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니체는 죽기 직전에 스스로를 ‘The Crucified’라고 종이폭자에 굶어 쓰며 자기를 마지막으

로 표현했습니다.

분노의 계절은 오래 전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그 바람은 방향만 바꾸었지 그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 한 우리의 선과 악의 경쟁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수필가)



이 그림은 '분노의 계절'이라는 칼럼의 일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위안소의 위법성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또 다시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문서 증거는 없을지라도 ‘강제적인’ 위안부 동원은 실제로 있었다. 위안부 증언집에 나오는 피해자 최일레씨는 군복 입은 두 남자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실려 만주로 끌려가 철망 처진 군부대 내에서 고초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집에는 강제동원 사례들이 많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극구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들을 ‘자발적’ ‘위안부’로 매도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일부 일본 우익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매춘 여성이 되었다면, 이는 자유로운 거래일 뿐 문제될 것도 없고, 범죄도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로지 위안소로 들어간 시점의 강제성 여부이다. 위안소 내에서 일어난 강제성은 외면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전략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4만세기 전에 ‘위안부’ 문제는 묵인되는 ‘필요악’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성범죄’로 재인식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분노할 이유는 없으며, “그래서 국가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차분하게 되물으면 된다.



故 김순덕 할머니의 작품 '물려가는 날'

족과 남편에 의해 배척, 외면 당했고 이혼 당했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로 끌려간 경우뿐 아니라 속아서 따라간 경우, 지인에 의해 팔려간 경우도 있고 매춘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제한된 몇가지 전형으로 피해자를 재현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강제로 끌려간 꽃다운 처녀’라는 피해자 모델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피해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다. 어떤 피해자들의 경험은 전형적인 피해자 이미지에 맞다는 이유로 전면에 부각되고 어떤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되거나 침묵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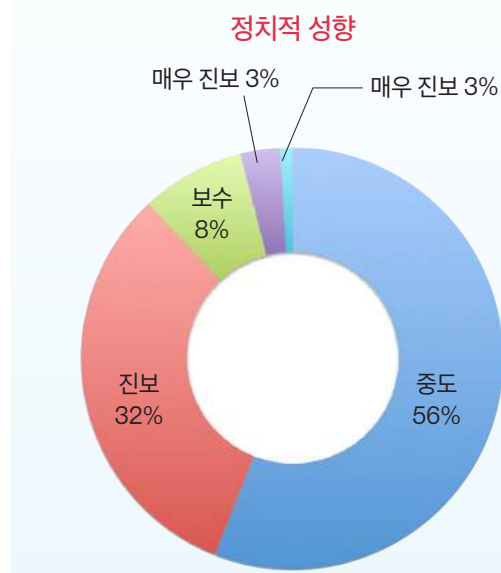
위안소 제도의 위법성은 피해자 동원 방법뿐 아니라 위안소 안에서 그들이 피할수 없었던 성적 강제와 감금,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등 인신을 구속당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위안소 내에 있던 여성들은 그들이 제 발로 따라갔던 강제로 끌려갔든, 10대 소녀였든 20대의 기혼여성이었든 공창이었든 모두가 동등한 피해자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국가책임은 피해자의 동원방법이나 배경과 무관하다.

(김정란 여성학 박사(이대), 사회학과 대학원 91)

2016 총선, 서울대생의 선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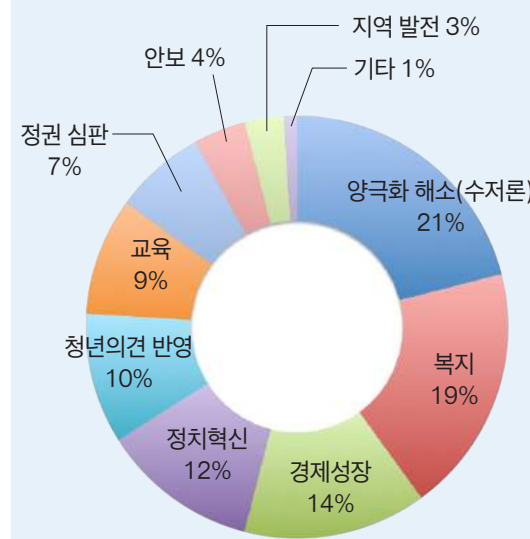
현정부 평가는 1.75점... 64.5% “지지하는 정당 없어”

〈서울대저널〉은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2016년 1학기 등록인원 17,440명(2016년 3월2일 기준, 추가 등록자 및 연건캠퍼스 제외) 중 594명을 대상으로 '서울대생의 정치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문항들은 서울대생들의 정치적 성향과 제20대 총선에 대한 참여와 기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표본은 단대별, 학년별, 성별 비율을 고려한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선정했다. 교차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으며 기사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래프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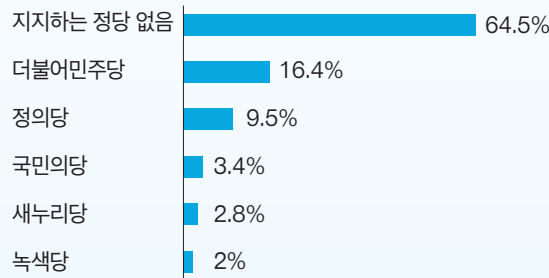
서울대생의 35.2% “진보적”...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가장 높아
서울대생들은 주관적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에 중도(55.9%), 진보적(32.5%), 보수적(8.1%), 매우 진보적(2.7%)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도’가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성향이 없는 응답자가 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과 ‘매우 진보적’의 응답비율을 더하면 서울대생의 35.2%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3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중도 41%, 진보 18.4%, 보수 10.8%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했을 때 서울대생 중 진보적 성향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투표를 위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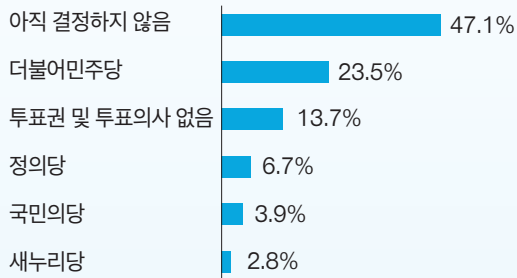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양극화 해소’, ‘복지’, ‘경제성장’
‘투표를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3개 골라달라’는 문항에는 양극화 해소(20.1%)와 복지(18.7%)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경제성장(14%)과 정치혁신(11.4%), 청년의견 반영(10.2%)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1.1%) 가운데는 인권(28.6%)과 성평등·소수자 존중(14.3%) 등이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대저널〉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묻는 질문에 양극화 해소(22.7%)와 경제성장(12.9%)이 최우선으로 꼽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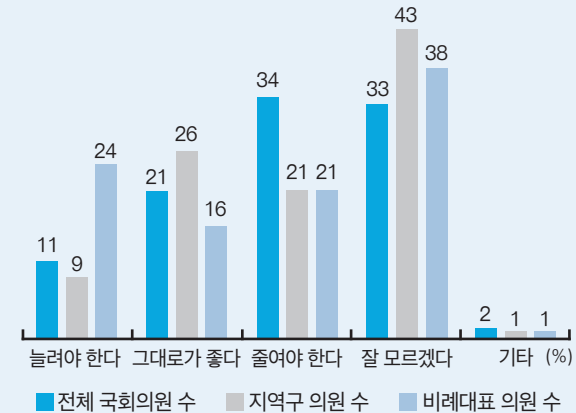
64.5%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정당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이 16.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정의당(9.5%), 국민의당(3.4%), 새누리당(2.8%), 녹색당(2%)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1년 6월 〈서울대저널〉에서 실시한 서울대생 총선 설문조사에서 동일 문항에서 한나라당이 23.3%, 민주당이 16.7%의 지지를 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학생들이 각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가운데 41.2%는 ‘정책과 행보가 마음에 들어서’, 17.6%는 ‘야당이 못하고 있어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0%는 ‘거대정당으로 정치혁신 기대’를, 22.9%는 ‘여당에 대한 반감’을, 18.8%는 ‘정책과 행보가 마음에 들어서’를 이유로 밝혔다. 한편 정의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90.9%가 ‘정책과 행보가 마음에 들어서’라고 응답했다. 거대 양당을 지지하는 경우 상대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비율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반해 정의당 지지자들은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에 대한 호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강원택 교수(정치외교학부)는 “그동안 정의당이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학생들에게 각인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6.7%, 3.9%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응답자가 47.1%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유동층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투표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를 잘 몰라서’(50.9%)가 가장 많았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18.3%),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어서’(16.6%)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대생들은 ‘정책 및 공약’을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48.1%).

현행 국회의원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자의 34%, “전체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지난 2월 23일 새로 선거구가 확정된 결과 지역구 의원은 종전의 246명에서 253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 〈서울대저널〉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이같이 조정된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전체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34%), 잘 모르겠다(32.7%), 그대로가 좋다(20.5%), 늘려야 한다(10.7%)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지역구 개수와 비례대표의원 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43.3%와 37.7%로 가장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보면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지역구 개수(8.6%)보다 비례대표 의원 수(24.2%)가 3배 정도 높았다. 이는 인물보다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나 제3당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52.4%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14.6%)의 응답률을 더하면 응답자의 67%가 총선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제25차 평의원의회

5th BRAIN NETWORK SYMPOSIUM ABSTRACTS

글로벌시대의 한국경제와 금융: 도전과 비전

김용현(경영대학원 66) University of Cincinnati

한미 과학계의 연결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

김영수(공대 76)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경제와 금융환경의 세계화는 일찍이 인류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적 변화의 큰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구촌의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신들의 현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미래를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또는 불연속(단절)의 시대로 불렸던 1960년대부터 압축성장형 개발을 경험한 한국경제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로 불리기 시작한 1980년대를 성공적으로 넘어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개발도상국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OECD와 G20 회원국으로 인정받는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압축성장 시대의 경직된 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중이기도 합니다. 중화학과 조선 등을 위주로 했던 소위 재벌기업 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하루속히 구축하여야,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경제금융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을 경제와 금융의 관점에서 개관하고, 한국 경제와 금융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되짚어 보면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The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of the world is characterized by an enormous historic globalization process that has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in the history of human society. The success story of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commonly known as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has become an envy of developing nations. However, experts point out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of post 'OECD' and G20 era would require a drastic departure from the outdated heavy-chemical industry drive and overreliance on family-oriented conglomerates (chaebols).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review economic globalization process, identify challenges faced by Korean economy and finance in the global era, and hopefully stimulate a discussion on framing the strategic directions to explore.



다양한 소인들이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병리 기전에 관하여

한창규(의대 75) University of Pennsylvania

두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몸의 부분이며 모든 정신 기능을 주관합니다. 대부분의 정신 질환은 두뇌의 생물학적 변화로 기인하며, 이 점은 최근의 정신과학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로 지난 수십년간 정신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진전이 있었고, 따라서 정신질환 연구에 전례없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 연구에 있어 특별히 힘든 것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영향의 복합성과 질병 원인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이 발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복합적이며 다양한 정신 질환의 근원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제가 특별히 어려운 점은 현금의 뛰어난 생명과학의 기술도 그 논리의 근본은 단순한 데 반해서 정신 질환의 근원은 복잡적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신질환 연구에 접근하는가를 저희 펜실베니아대학 실험실의 정신분열증에 관한 근자의 발견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The brain is the most complex organ in our body, which governs our thoughts, emotions, judgements and all behaviors. Alterations in this organ are therefore responsible for all mental functions as well as mental illnesses, which are now a focus of biomedical research of this era. The last few decades have witnessed an explosion of new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which have opened an unprecedented era in our understanding of the human mind. Such advancement in neuroscience has excelled our understanding of mental illnesses, which had been in the dark through the history. At the core of etiologic mechanisms for mental illnesses are complex nature - nurture interactions, which involve DNAs, RNAs, proteins, pathways, brain circuitry and their functions. This presentation will first discuss the interactions between nature and nurture as an overall conceptual framework for psychiatric illness and then illustrate complex and heterogeneous nature to the pathophysiology of mental illnesses and how to deconstruct it. In doing so, we will use an example of pathophysiologic investigation of schizophrenia predicated on a recent discovery in my laboratory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6천명이 넘는 재미한인 과학기술자 회원들을 대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재미과기협외의 역사와 중요한 사업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서울대학교 동창들이 협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바를 소개한다. 또한 재미과기협이 한미 과학계의 연결과 한국의 과학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발표한다. 재미한인 차세대를 돕는 사업은 재미과기협의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차세대들의 동향과 그들이 재미한인 사회에 섞이는데 있어서, 특히 리더로 성장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리더쉽의 예들을 검토해 보고 재미한인사회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리더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생각을 나누어 본다.

The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 is a 44-year-old nonprofit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over 6,000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presentation, the history and major activities of KSEA will be introduced, with particular attention given to the involvement of the alumn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ever appropriate. Emphasis will be on the various ways that KSEA has worked with Korean entities to advance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Also, this presentation will attempt to address the current status of young generation members in KSEA and discuss some of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m as they move into Korean-American society and into leadership roles. Finally, the author of this presentation discusses some leadership examples and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servant leadership needs to be emphasized in Korean-American communities to bring Korean-American society to an even higher level of excellence.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한반도 국제정치

김연호(외교 88) Johns Hopkins University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군사전략적 함의, 한미 양국의 대응, 한반도 국제정치 등에서 이전 핵실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수소 폭탄 실험 주장과 두 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통해 김정은 권력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능력 확보가 단지 시간의 문제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미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됐다.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없게 됐고, 한반도 국제정치에서 운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도 줄어들었다. THAAD 배치 논의는 한국이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낳았다. 핵실험의 당사자인 북한 못지 않게 한국 역시 국제정치적 파장을 체감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과 상의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연계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한국 내에서 일었다. 최근들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외교적 연사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재개할 정치적 동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연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earlier this year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tests in terms of its military strategic implications, the way South Korea and the U.S. responded,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anks to its claim of hydrogen bomb test and the second successful long-range rocket launch, the Kim Jong Un regime left a deep impress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is a matter of time that North Korea secures a long-range nuclear missile capability. In response, Seoul took an extreme measure of shutting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launched formal talks with Washington to deplo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 South Korea, leading to new challenges in the

(7페이지에 계속)

《6페이지에서 계속》 inter-Korean and ROK-China relations. The KIC shut-down left few options for Seoul to utilize in dealing with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has reduced South Korea's strategic room to maneuver in the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talks on THAAD deployment could involve South Korea in the strateg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political aftershocks of the nuclear test were felt not only in North Korea, the culprit of the test, but also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re was speculation in South Korea that Washington and Beijing had agreed, without Seoul's knowledge, to link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ace treaty for a deal on the new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recently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a "parallel process" involving peace treaty talks with the North in tandem with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t is also true that the remarks are limited to diplomatic rhetorics to help China save face on tougher U.N. sanctions on North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s scheduled for this November, it is hard to see any political momentum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o resume direct dialogue with the North. However, it is a noteworthy change that the U.S. indicated it is open to a linkage betwee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treaty.

가 모교 소식 SNU NOW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셔온다며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1년 중 한국에 머무는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하고, 강의조차 맡지 않아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조차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대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노벨상급 석학 초빙 사업’에 대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3일 이렇게 말했다. 노벨상 수상자라는 타이틀만 빌려올 뿐 연구 여건 조성 등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대외홍보용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 교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빙해 놓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현재 서울대에 재직 중인 노벨상급 석학은 200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아론 치에하노베르 의학과 석좌교수 등 총 6명이다. 이 중에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이란 평가를 받는 2008년 호암상 수상자 김필립 물리·천문학부 석좌교수도 포함돼 있다. 나노소재 그래핀 연구분야 권위자인 김필립 교수는 2013년 3월 서울대에 초빙됐지만 그간 정규 수업 없이 한 학기에 한 차례씩 특강만 진행했다. 올해 김 교수의 연구·수업 계획과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3일 “이번 학기 역시 정규 수

미주총동창회 제25차 전국 평의원회 일정

June 24-26, 2016

Time/Date	6/24, 금요일	6/25, 토요일	6/26, 일요일		
AM 7:00-8:3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8:30-9:00	Registration	Registration	Free Time		
9:00-10:00	Brain Network Symposium	평의원회	예배 / Free Time		
10:30-12:00			Move to Golf Club - 접수 10:30 am		
PM 12:00-1:00			Lunch & Photo		
1:00-1:45	Brain Network Symposium	평의원회	Lunch & Photo Golf Outing @Center Sq. golf club Tee time 12:00 pm \$100/person *일반회원 환영		
1:45-3:30	Local Tour @Valley Forge National Park				
3:30-5:00					
5:00-6:00					
6:00-8:00	전야제 @DoubleTree Hotel *일반회원 환영	평의원회 만찬 @Calvary Vision Center -축사: 성낙인 총장 -Keynote Speaker: 오준UN대사 -음악회 및 친목			
8:00-9:30					
9:30-11:00	지부장모임	Hotel	Hotel		

· Brain Network Symposium Schedule

09:20-10:00 :김용현 “글로벌시대의 한국경제와 금융: 도전과 비전”
10:00-10:40 :김연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한반도 국제정치”
11:00-11:40 :김영수 “한미과학계의 연결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
11:40-12:20 :한창규 “다양한 소인들이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병리 기전에 관하여”
1:00-1:45 :Panel Discussion

*Brain Network Symposium Free

*23일(목요일) 6:00pm 환영식사, ‘아리수’식당
1002 W Skippack Pike, Blue Bell, PA 19422
Tel: 215-654-8900

· 평의원회 회비: **\$100**
· 일반 회원및 가족 참가비: 전야제 **\$60**, 평의원회 만찬 **\$100**
· Spouse Program: 6월 25일 Visit Lancaster(9am-5pm) **\$80**

· 문의: 484-342-5500 Ex.302, Email: general@snuuaa.org

Hotel: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oad, Plymouth Meeting, PA 19462-1003
Tel: +1-610-834-8300, Fax: +1-610-879-4242

평의원회 장소: Calvary Vision Center (CVC)
550 Township Line Rd. Suite 200, Blue Bell, PA 19422

· 예약마감: **6월 10일**, 등록은: <http://goo.gl/6E7dYK>
1 King Suite w/Sofa Bed: \$117
2 Double Suite w/Sofa bed: \$127

장소표기: Hotel: CVC:

연 30억 들어 노벨상급 6명 모셔왔지만 ...



성명(전공)	토머스 사전트(경제학)	참소리(유전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노벨경제학상(2011년) 1억2500만원(연간 4개월 지급)	호암 의학상(2008년) 7300만원(연간 1.5개월 지급)
월 지급액	연구지원비 8억원 기타운영비 2억원	연구지원비 4억4000만원 기타운영비 1억3800만원
부대경비	연 15억원	연 6억8800만원
합계	국고	국고
현재 재직 여부	X	X

성명(전공)	김필립(물리학)	가시와라 마사카(수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미국물리학회 ‘올라버버클라지’상(2013년) 해당 없음	D-module 이론 및 Crystal Basis 이론 개발 3000만원(연간 2개월 지급)
월 지급액	연구지원비 3억5000만원 기타운영비 8000만원	연구지원비 5000만원 기타운영비 9000만원
부대경비	연 3억8500만원	연 2억원
합계	국고	국고
현재 재직 여부	O	X

업을 맡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다른 석학들도 비슷하다. 서울대가 현재 6명의 석학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지원비와 기타 운영비(국내체제비와 항공료 등) 등은 연간 3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2016년도 1학기 기준 정규 강의를 맡은 교수는 한 명도 없다.

서울대의 석학 초빙 사업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초빙한 석학은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석좌교수다. 그는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서울대는 2012년 9월 연구지원비 8억원에 기타 운영비 2억원 등 매년 1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전트 교수를 데려왔다. 그러나 파격적 조

건에도 사전트 교수는 애초 2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다는 계약을 깨고 1년 만에 서울대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서울대가 사전트 교수의 능력과 명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서울대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트 교수의 ‘거시경제학 특수연구’ 수업엔 50명 정원에 14명만 수강신청해 신청률이 28%에 그쳤고, ‘거시경제학 특강’은 250명 정원에 단 21명만이 수강신청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교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외국인 교수들은 집을 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중국·일본처럼 외국인 교수의 현지 적응을 돕는 코디네이터·멘토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열·순열주의가 강한 한국 대학 문화도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다.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한 외국인 교수가 ‘생활여건 지원은커녕 연구시설 이용이나 학교생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시스템조차 없다며 불평을 쏟아내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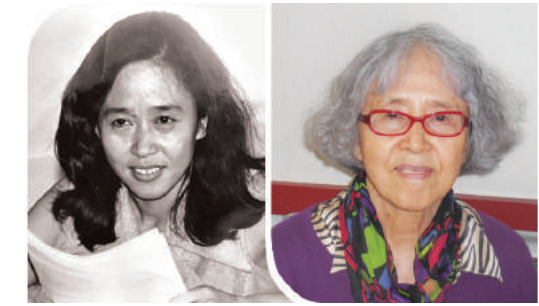
〈중앙일보 발췌〉



*My Story &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있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학교에서 보내고,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문님의 story와 과거, 현재 사진을 news@snuua.org로 보내주세요.

〈담당: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김재희(NY, 문리대 54)

1. 졸업 후 시상계에서 시작한 후 경향신문, 서울신문, 월간중앙 센터 등에서 기자생활. 1975년에 Bangladesh 에서 시작한 UN 직원 생활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Sierra Leone 그리고 일본 등 입지에서 UNICEF(UN 아동기금) 대표로 일했다. 1995년 은퇴 후 LA에서 살다가 2001년 이후 뉴욕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2. 지난 2월 말 Sierra Leone에 2주간 다녀왔다. 1984년 -1990년까지 5년반 동안 그 나라의 UNICEF 초대 대표로 근무했던 나라다. 내 직장 경험으로는 가장 의미 깊고 화려했다고도 할 수 있는 고장이다. “Mammy Kim”이라는 애칭으로 온나라에서 “마미김이 시킨 일이야!” 하면 보건 사회부 직원, 마을 지도자들이 모두 “알았어요!” 했다는 얘기를 이번 여행 중에 듣고 아연 실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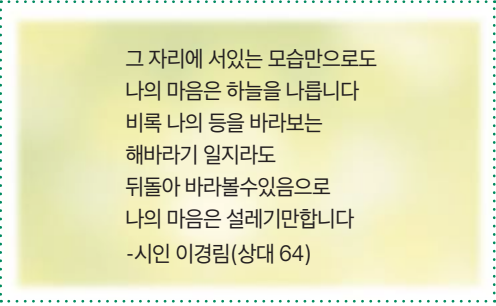
그런 반면 일상생활 자체는 여러가지 추억이 엇갈리는 나라다. 일상 생활이 편한 이른바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다. 서양말로 “creature comfort”는 zero인 고장이었다고 할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용품이 항상 동나기 직전의 상태로 살아야 했으니까. 일상생활용품까지도 home leave 때에 바리바리 실어 날라야만 했었다. 심지어 한때는 매달 직원들의 식량(쌀)을 옆 나라인 Liberia로부터 수입해 올 수 있도록 추천하는 일까지 했었다.

정전이 빈번해서 자택발전기가 없이는 전력 공급이 안 되는 형편이었다. 6.25 전쟁 중 또는 직후에 겪었던 꾀박한 일상생활보다 더 힘들었거나 비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직원 4명 국내직원 몇명으로 시작한 사무실이 떠날 때에는 약 70명의 직원이 일하는 사무실이 되었다. 유아예방접종을 5% 로 시작된 UNICEF와 정부의 공동사업은 내가 전근되어 떠났던 1990년에는 75% 접종률이라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3. 1975년 떠나기 직전까지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그 때 활발했던 여성운동(호적제도등등)에 깊이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만일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성문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1967년 처음으로 미국에 왔었다. 미국 여기자



그 자리에 서있는 모습만으로도 나의 마음은 하늘을 나릅니다 비록 나의 등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일지라도 뒤돌아 바라볼수있음으로 나의 마음은 설레기만합니다 -시인 이경림(상대 64)

협회의 초청으로 아시아 아홉나라에서 한 명씩 초청된 여기자 9명이 한달동안 미전역을 도는 프로그램이었다. 호노롤루에서 일주일 회의 다음에 처음 샌프란시스코로 옮긴 날 밤 호텔에서 맛본 밀크셰이크의 그 이상하고 진한 단맛에 황당해 하던 기억이 남는다. 그 후 다시는 그런 음식을 입에 대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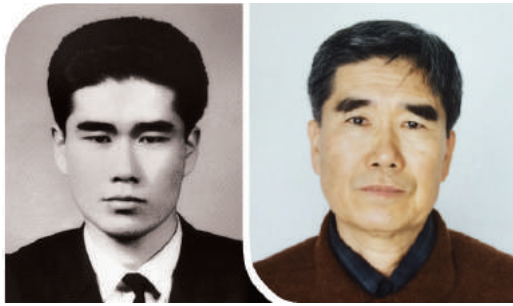
4. 어떤 여학교 동창이 수업시간에 책상 밑에서 문학 책 읽던 아이로 기억한다고 했던 일이 있다. 아직도 그렇다. New York에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좋은 영화, 연극, 음악, dance, 전시 등등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친구가 몇년전 세상 떠난 후 이른 바 문화생활이 극도로 줄었다. 혼자라도 전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하고 있다. 음식은 온갖 야채와 과일로 만든 그린 스무디로 아침마다 먹는다.

5. 40년 거의 매일 하던 수영을 요즘은 이틀에 한번 쯤 하게 된다. 거의 중독상태기 때문에 일주에 세 번은 세상 없어도 해야 된다는 느낌이다. 하루 걸러 수영 전 30분쯤 근육 운동을 한다. 특히 무릎과 종아리에 집중하는데 며칠 못하면 무릎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도 중독인지! 아침에 계란, 도마도, 녹죽,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는 내 기본 식단이다.

6. 서울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싶다. 현대의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여러 사회 분란을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버킷리스트? 어디를 유명지라 간다는 것이 나는 익숙치 않다. 어느 지방에 회의가 있는데 또는 친구가 살고 있는 고장이라 가는 길에 들릴 수 있는 이름난 고장이 곧 내 여행 목적지다. 직업상 몇년씩 산 나라들이 여섯나라(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회의 또는 특별 출장으로 잠깐씩 방문한 나라가 30여개국. 어디 가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없고. 별달리 버킷리스트 없다. 재미없게시리.

7. 동창회보 기사를 읽다 보면 훌륭한 동창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렇게 난다 긴다 하는 분들 서열에 끼는 것이 서울대 졸업했기 때문이라니 약간 쑥스럽고 민망하다고나 할까.



박취서(CA, 약대 60)

1. 1964년에 약학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한일 약품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1969년초에 유학생의 자격으로 미국에 와서 약제학(Industrial Pharmacy)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귀국할 예정이었다.

2. 매일 매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無自欺)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Brave New World”라는 소설에서 Aldous Huxley라는 영국 작가가 얘기했던 “I wanted to change the world. But I have found that the only thing one can be sure of changing is oneself.” 라는 말을 매일 새벽 기도시간에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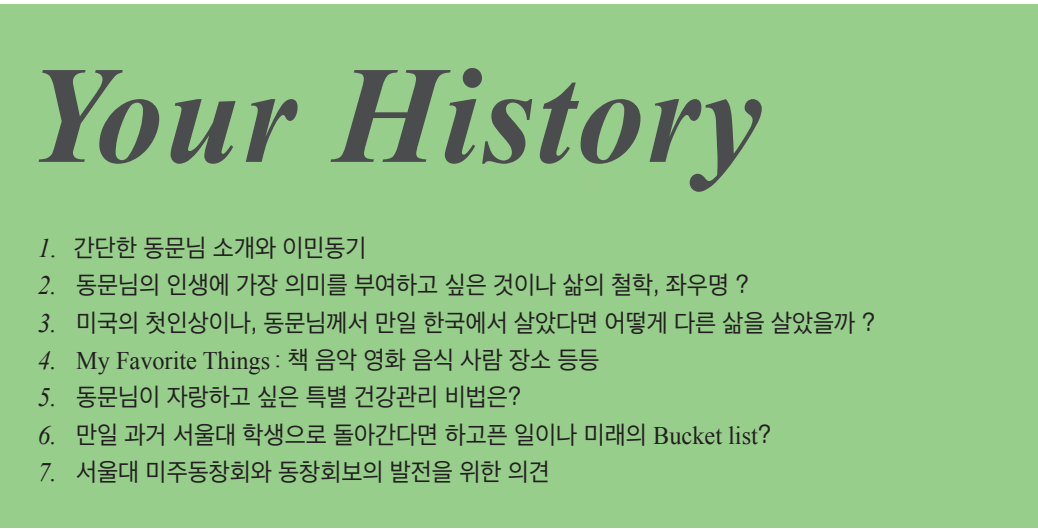
3.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광대한 신천지로구나!” 하는 것이 첫 인상이었다. 한국에서 있었으면 아마도 나의 아버님의 고향인 충청남도 신탄진에서 “덕암약국”이라는 약국을 경영하다가 은퇴했을 것이다.

4.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8대종교에 관한 서적을 많이 읽고 있다. 음악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등의 classic을 듣기를 좋아하나 한국가곡과 유행가도 즐겨 부른다. 영화는 “벤허”나 “십계”등 종교영화를 즐기는 편이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한다. 취미생활로는 등산, 여행, 바둑을 시간이 날 때마다 즐기고 있다.

5. 특별한 비법은 없고, 어느 사람이 온전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려면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body, mind, soul and spirit)이 원(circle)의 모양으로 smooth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6. 농과대학에 입학하여 시골에 들어가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농촌계몽을 하면서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라는 사람의 life style을 모방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 미국에서 1972년에 석사학위를 끝내고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는 약물속도론(藥物速度論, pharmacokinetics)이라는 학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마무리하고 싶다.

7. 지금 편집위원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동창회보를 만들고 계신다. 계속 건투하시기를 빈다.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이정근(CA, 사대 60)

1. 1972년 8월에 Asbury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 석사학위 과정 입학이 되어 미국 땅을 처음 밟았다. 모국에 돌아가 3년 동안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한 뒤 더 공부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다시 도미했다. 웨스턴북음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철학박사 과정에서 수학했다. 유니온교회를 개척하여 30년 목회활동을 한 뒤 6년 전에 은퇴했다. 지금은 Fuller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섬기는 중이며 글쓰기 목회에 열심을 쏟고 있다.

2. 단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 인생 최대 사건이다. 그 때는 모교 교육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여서 몇 가지 좋은 제안이 와 있었다. 자신의 후임교수로 추천할 계획으로 조교생활부터 시작해보자는 전공지도교수님의 제안대로 결정했으나 학답을 드리기 직전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결단했다. 지금도 모국을 방문하면 모교 관악캠퍼스 정문 앞에 서서 모교를 위하여 기도한다. <서울대학교 기독교동문회> 회목이기 때문이다. 신학연구와 목회활동을 종합하여 나 자신의 신학사상체계를 세웠는데 합생주의(成生主義, combiosism)라고 이름 붙였다.

3. 미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이 종합적 인상이었다. 자연환경, 사회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신앙환경이 모두 경탄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살았다면 아내와 자녀들의 고생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미주에서 개척교회 한담시고 가족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다. 목사가 안 되었다면 국어학 교수이면서 국어사전 편찬 전문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제의를 받았으나 정치는 평생 안하기로 했다.

4. 영화 “하이 Noon” (High Noon). 대학시절 청량리역 근처 동시상영 극장에서 처음 관람했고 그 뒤에도 여러번 보았다. 그리고 그 주제를 지금도 자주 흥얼거린다. 주인공의 정의를 위



*My story & your history*는 모든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동문이 있으면 news@snuua.org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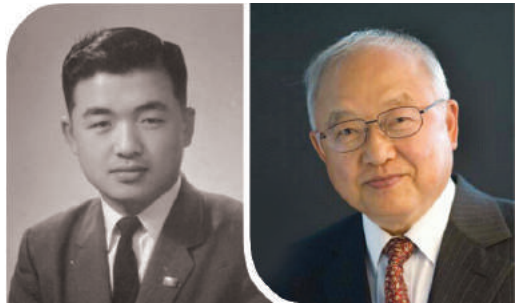
한 단기필마적 투쟁과 용기를 보여주는 영화로 목회활동에 큰 참고가 된다.

5. 직업인 평균수명에서 종교인은 늘 최장수 등급이니까 ‘알곡목회자’가 된다는 것 외에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 비법은 없다. 몸과 정신과 영혼을 항상 선용하면 건강하게 되고 악용하면 병약하게 된다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랄까.

6. 남북통일운동을 세차게 주도하고 싶다. 일제강점시대에 독립운동을 외면하면 민족 반역자였듯이 이 시대에 남북통일에 무관심하면 통일반역자로 지탄받게 된다고 자주 외쳐왔다. 신입생 때 4.19 데모대에 참여 경무대(청와대) 앞까지 돌진했다가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래서 지금도 한반도에 ‘영세평화국’을 건설하는 <4.19 통일론>을 줄기차게 주장한다.

남한 출생인 나는 27년 전 북조선을 방문했었다. <기독교 평양 복음화대회> 준비위원회 총무로서 대화협의차 또 다른 조국엔 처음 갔었다. 그 때 김일성종합대학교 종교학과 특강강사로도 초빙되었다. 남, 북, 해외 기독교 지도자 각 1천명씩 도합 3천명이 모여 평양에서 북음화 대회를 연다는 것은 통일 성취의 민족사적 사건이 될만 했다. 하지만 남북의 정치적 공작으로 불발되었다.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남측으로부터는 ‘빨갱이가 되었다’는 비난이 폭주했다. 참 무서운 말이었다. 그리고 북측으로부터는, “조국에 충성맹세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처리하겠다.”는 협박장을 받았다. 그 사건은 교포 언론들이 첫 번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7. 우리 미주동문회보에도 재학시절 은사님들과 겪은 수많은 이야기들, 선후배와 동문 간의 이런 저런 인간관계 체험담들을 실으면 좋지 않을까. 감동적인 것이라야 좋겠지만, 쓰디 쓴 실패담이면 더 좋겠다. 입에 쓸수록 양약이라 했으니 말이다.



이시진(NJ, 문리대 54)

1. 나는 평양근처에서 15년 살고 1-4후퇴때 이남에 나와서 16년 살고 독일 유학가서 2년(1967-69) 그리고 미국에 와서(1969) 47년을 살았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독어독문과를 졸업했고 미국에서는 Library Science를 공부했다. 대학교서관에서 일하다 한번은 내 막내딸의 사진을 찍어서 영어와 한국어로 Text를 넣고 “Soon-Hee in America” (절판)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것이 1977년이었는데 이 책이 바로 미국출판사상 최초의 영한 이중어의 어린이 책이 된 것이다. 동시에 Hollym International이라는 출판사가 설립되었는데 최초의 한미 합작으로 이것을 계기로 한국출판계 Globalization의 시효가 되었다. 한국에 관한 책을 출판하다 보니 독자가 제한되어 크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이 출판사를 New Jersey에서 시작한 것이 어언 39년이 되었다. 이민 동기는 Wife가 미국오자고 해서 온 것뿐이다.

2.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합쳐서 미국문화가 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한국문화를 이 나라에 심는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또한 교회에서는 영어성경공부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참으로 보람을 느낀다. 나는 ‘쇠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돼라’는 교훈을 배척하고 ‘한 건물의 벽돌 한장이 돼라’는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는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

3. 처음 미국에서 시카고의 교외에 살았는데 운전자들이 손짓을 하며 서로 길을 양보하는 것을 보고 남을 배려하는 일등국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글쎄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디선가 teaching job을 갖고 있다가 은퇴했겠지.

4.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 classical 음악과 오페라를 좋아한다. “Tristan und Isolde”는 명장 Wagner의 최고 걸작이다. 세계 도시중에 Italy의 Florence를 제일 좋아한다.

5. 최소한 20분동안 천천히 먹고, 채소와 견과류 70%, 고기와 생선 20%, 밥이나 전분 10%의 비율로 먹는다. 매일 아침 5분간 아령 (Dumb bells)을 하고 줄넘기 300씩 한다. Wife와 손잡고 동네를 한바퀴 돌며 만나는 사람마다 Hi 하고 웃으며 인사하고, Golf를 34년째 치고 있다.

6. 외국어를 하나라도 더 공부했으면 한다. 두개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두개의 문화권을 사는 것이고 두개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Wife의 Bucket list가 미국 50개주를 다 가보는 건데 아직 11개 주가 남았다. 50개를 완성할 때까지 동행해 주었으면 한다.

7. 서울대 동창회보를 읽으면 자랑스럽고 나도 공연히 자부심이 생긴다. 성공담들이 감명깊다. 한편 인간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읽을거리도 섞였으면 좋겠다.

남가주 : 춘계골프대회 / 카메라타 퍼시피카 정지혜 연주 / 김경애 ‘Harmony and Saliency’ 7인전 참가



춘계골프대회 봄날의 햇볕이 따사로웠던 지난 4월 16일, La Habra에 위치한 Westridge Golf Club에서는 8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춘계 골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골프장 곳곳에 피어 있는 각양각색의 꽃들은 진한 향기를 뿜어내었고 푸르른

풀밭은 싱그러움을 더해 주어 동문들은 화사한 봄날을 만끽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쳤고 골프대회가 끝난 후, 근처 MK BBQ 식당에서 시상식과 더불어 저녁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EDALIST: 남 이기준(법대 54) / 여 제영혜(가정대 71)
CHAMPION: 남 이청광(상61)
LONGEST: 남 김광현(Guest) / 여 김정숙(Guest)
CLOSEST: 강규찬(치대 56)
EAGLE(진기상): 강호석(상대 81) / 김창욱(상79)

특히 이기준(전 총동창회장) 동문은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를 쳐서 MEDALIST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강호석, 김창욱 동문은 같은 홀에서 -2를 쳐서 EAGLE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은 행사 후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 GUEST로 참가해 주신 연세대 동창회장 및 연대 동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을 위해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추계 대회 때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접수 및 진행에는 성주경(상대 68) 수석부회장, 홍성선(약대 72) 사업국장, 이학진(농대 71) 행사위원장,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양수진(간호대 80) 부서기, 유혜연(음대 77) 문화위원, 이명일(약대 72) 약대회장 등의 동문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사진: 김인종(농대 74)>



카메라타 퍼시피카 정지혜 연주

‘카메라타 퍼시피카’(Camerata Pacifica)가 데이빗 브루스에게 위촉한 오보·하프·첼로·타악기를 위한 신곡 ‘컨슬레이션 오브 레인’이 배일을 벗는다.

마림바 연주자 정지혜씨의 무게감을 느끼게 될 세계 초연 무대로 LA공연은 오는 14일 오후 8시 폴번스를 지퍼홀에서 열린다. 이날 카메라타 퍼시피카는 아키라 구로사와 영화 ‘탄’으로 유명한 일본 현대음악의 기수 토루 다케미수가 작곡한 ‘브라이스’, 토마스 오스본의 ‘밤의 끝으로의 여행’, 크리스토퍼 딘의 ‘모닝 드브 소넷’, 드뷔시의 ‘빌리타스의 노래들’을 연주한다.

정지혜씨는 LA타임스 음악비평가 마크 스웨드가 ‘핫 페퍼’ 초연을 보고 ‘대단하고 특출하며 천부적 재능의 연주자로 중심을 갖고 안정감 있게 큰 악기를 총휘무진 마음대로 다룬다’며 극찬한 타악인이다. 예원과 서울예고

를 거쳐 서울대 음대 1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와 피바디 음대를 수석 졸업했고 예일대에서 음악 석사학위를 받았다. 캔사스 음대 부교수를 거쳐 밴더빌트 대학 블레어 음대 타악기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섯 살 때부터 마림바를 연주한 그는 수많은 국내외 마림바 콩쿠르에서 1등을 휩쓸었으며 9세 때부터 한국의 주요 오케스트라들과 100여회의 콘서트를 가졌다. 2006년 린츠 국제 마림바 콩쿠르와 2007년 예일 고든 콘체르토 콩쿠르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휴스턴 오케스트라, 잘츠부르크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카네기홀에서 지휘자 데이빗 로버츠와 메시아안 전 프로그램을 협연한 바 있다.

‘카메라타 퍼시피카’(Camerata Pacifica·음악감독 에드리언 스펜스)에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바이얼리니스트 크리스틴 리, 마림바 연주자 정지혜씨가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김경애 ‘Harmony and Saliency’ 7인전 참가

Los Angeles 한국문화원에서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Harmony and Saliency”라는 주제로 7인전이 열리고 있는데 회화 30점과 도예 5점이 전시된다. 서울대 동문 중에서는 김경애(미대 83) 화가가 참가했는데 Jacaranda III와 Night Desert, 두 점을 출품했다. Jacaranda III은 봄에 피는 Jacaranda 꽃과 나무를 달항아리와 결합해 표현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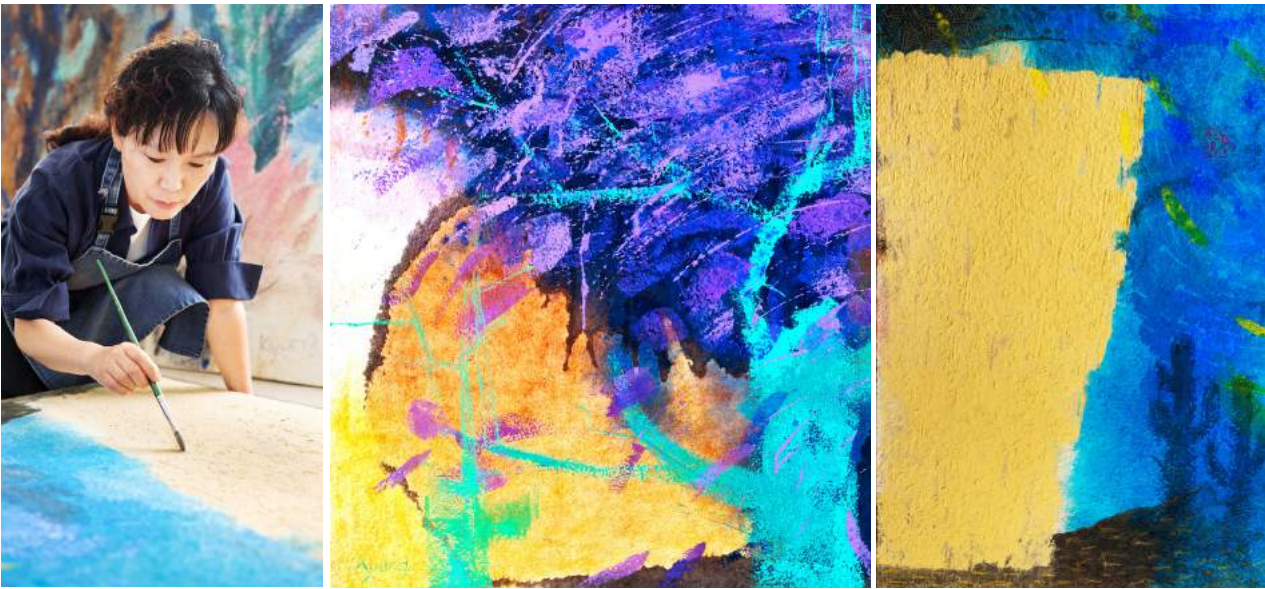
이고, Night Desert는 캘리포니아에서 볼 수 있는 사막의 밤을 큰 도자기 화분과 결합한 반주상 작품이다.

김경애 동문은 캔버스 천 위에 한지층을 덧발라 만든 한지 캔버스를 제작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지캔버스에 대한 특허도 갖고 있다.

김경애 동문은 “젓소 질이 된 견고한 캔버스 위에 한지 원

료를 얇게 펴고 건조시킨 후 2~3회 표면막 처리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표면에 불특정 요철무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기존의 한지 혹은 캔버스와는 다른 질감을 표현해 독특한 느낌의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지 캔버스의 여백은 과감하게 생략된 공간 등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관념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후, 상명대, 안동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제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제9회 중앙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하는 등 화려한 경력의 소지자이다. 또한 한국 관훈미술관과 인사동 공화랑, Los Angeles 리앤리켈러리 등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한국문화진흥원, 서울갤러리, 한국갤러리 등에서 초대전과 남가주 미대동문전, 남가주 한인미술가 협회전 등의 그림전에 참가하는 등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명망있는 화가이다. 현재 남가주 미대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으며 남가주 한인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시카고 : 유성모, 미술 통한 국위선양

시카고 동창회 관악클럽 멤버인 유성모(미대 82) 동문이 4월 29일에 KBS 홀에서 열린 국제 미용대회에서 대상, 국회의원상, 대통령상을 모두 수상했다.

KBE(K-Beauty)는 한국미용협회에서 주관하고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K-Beauty(K-Pop처럼)의 우수성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올해로 열 번째 개최된 권위있는 국제 미용대회이다. 천 명이 넘게 참여한 이번 경연에는, 특히 중국인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들을 통해 한국 미용의 놀라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유 동문은 이 중에 Art Makeup(반영구 화장)과 Art Hair(헤어 타투), 그리고 HMP(Hair Micropigmentation) 부문에서, 앞으로도 계속 K-Beauty의 리더로 활동해 달라는 격려의 인사와 함께 이 큰 상들을 휩쓸었다.

헤어 타투 분야는 유 동문이 3년 전 영국에서 배워 도입했을 때만 해도 미국과 한국에서조차 생소했는데, 요즘에는 매우 각광받는 미용 기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유 동문은 또한 Jewelry 공예에 탁월하여 그동안 영국왕실의 보석학교에서 몇년동안 수련을 받아 자격증도 소유한 미용과 보석가공의 최고 전문가이다.

유 동문은 시카고 동창회에 매년 일, 이천불의 장학기금을 기부해 오고 있으며, 젊은 후배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식사비를 부담하거나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선물권을 기부하는 등, 항상 동창회와 특히 후배들을 위해 많았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다. 시카고를 베이스로 재미탈북동포들을 돕는 ENoK의 멤버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에게 미용기술도 가르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면 참조) 유 동문은 수상 내역과 소감을 부탁하는 본 동창회보에 이렇게 알려지기를 극구



사양한다고 한다. 유 동문을 향해 주변 동문들은 한결같이 자랑스런 동문으로 많은 동문들의 귀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가주 : 등산모임 / 소프라노 이윤정 독창회 / 쏘넷과 가야금 협주곡 연주 박경소

등산모임 북가주 동창회 등산모임인 Zinfandel Hiking Club은 매주 토요일 8시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 같은 등산길 4마일 걷기를 2년 반 이상 날씨와 관계없이 꾸준히 계속해 오고 있다.

3월 26일 126차는 봄맞이 특별행사로 San Francisco 서북쪽 태평양과 상항만을 잇는 해안을 따라 조성된 Ends Land를 Golden Gate Bridge를 바라보며 걷는 4.5마일 코스로 택했다.

날씨는 알맞은 기후에 훈풍도 불고 Monterey Cypress Tree 사이로 안개를 뚫고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으며 “San Francisco에 이런 곳이 있었나? 너무 아름다운 코스다.”를 연발한다. Mile Rock Beach로 내려가선 사진 찍기에 바쁘고 누가 그 많은 작은 돌로 만들어진 신비한 미로(Labyrinth)를 걸으며 여자분들은 소원(?)도 빌어본다.

오늘 참가 인원은 28명 대부분 산호세에 사시는 분들이고 특히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는 모데스토에서 오신 윤기철(의 65. 부인 박선임 68. 간호), 우리에게 항상 깨우침을 주시는 한만섭(49.공), 이성덕(52.문)부부는 딸과 사위를 대동하고 나오서 86세 생신 파티를 최승희 총무가 밤새 만든 생일 케익을 짜르며 축하를 받으셨다.



등산클럽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는 총무를 맡은 최승희(81. 사회대) 부군 김범섭(79. 공)부부의 역할이 지대하다. 매주 목, 금요일이며 회원들의 동정상황 등을 이메일로 보내

오고 회원들을 일일이 챙기기를 한주도 빼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에 매주 20~30명의 회원이 건강도 다지며 우애도 돈독히 하고 있다. <글, 사진: 홍경삼(문리대 61) 전 동창회이사장>

소프라노 이윤정 독창회

북가주 San Francisco지역 서울예고 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대 음대동문회가 후원한 이윤정(음대 04) 소프라노 독창회가 안영실(음대 79) 피아노 반주로 Palo Alto에 있는 Grace Lutheran교회에서 많은 음악 애호가의 성원을 받으며 3월 11일에 열렸다.

가품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수의 우리 동문이 참석하여 많은 사랑받는 Handel의 ‘Lascia ch’la pianga’로 시작해 일반인은 처음 들어 보는 윤이상의 ‘그네’, ‘고풍

의상’ 흥겨운 김동진 신아리랑 등 한국의 가곡, 그리고 우리 귀에 친숙한 Puccini의 La boheme ‘Quando m’en vo’로 끝을 맺었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서울예고 동문회에서 마련한 다과회가 열려 덕담을 주고 받으며 선후배간의 친숙함을 더해주었다.

사진: 정지선(58.상) 김철규(60.공) 이장우(71.문) 홍경삼(61.문) 황만익(59.사) 노상규(60.공) 정조웅(60.공) 윤성희(68.사) 이수정(음대동문회장)등이 보인다.

<글, 사진:홍경삼(문리대 61) 전 동창회이사장>



쏘넷과 가야금 협주곡 연주 박경소

2016년 우든피쉬앙상블의 정기공연이 4월 3일(일) 샌프란시스코 Old First Church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다장조(K. 415), 나흐신의 Invisible Door(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 이중주), 가야금산조 등이 연주되었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북가주지역을 방문한 가야금 명인 박경소 동문은 국립국악고, 한국예

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을 마친 뒤 모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가야금 연주가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세계 초연하는 나흐신의 가야금 협주곡은 ‘Song of Bear’ 즉 ‘곰의 노래’라는 작품이다. 미동부 뉴욕 등에서 공연을 해왔고, 샌프란시스코는 처음이라는 박 동문은 전통악기 연주가로서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의 다른 점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하는 기분

일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금 산조로 손을 풀어 하루를 시작하고, 현대음악을 연주 할 때는 마치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2016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한다.

그러나 가야금의 역사와 그 정체성을 알고 있기에 용기있게 현대음악의 더 먼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전통악기를 통해 옛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를 적절하게 블렌딩 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미주한국일보 발췌>



샌디에고 : 한국문화의 밤

4월 10일 (일) 오후 6시~8시에 UCSD의 Price Center (학생회관) 공연장에서 제5회 한국문화의 밤 행사 (입장료 무료)가 있었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10~20대들의 젊은이들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공연하는 이번 행사에는 다음의 동문/동문가족분들께서 참가해주셨습니다.

김병목 의대 45)/한화심, 김향자(약대 61), 임천빈(문리대 61), 김주성(농대 83)/진승희/김기현, 최흥수(자연대 87), 황정빈 (사회대 02)

특히 이번 한국문화의 밤 행사에는 뜻깊게도 우리 샌디에고 서울대학교 동문회의 김향자 동문 (약대 61)과 임천빈 동문 (문리대 61)께서 오프닝 문화 행사에 참여해 행사 무대를 빛내주셨습니다.

공연장 야외에서 시작한 샌디에고 한국 풍물학교 (SDKPI)의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과 함께 시작된 이번 행사는 본 공연장 안에서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김향자 동문의 멋지고 우아한 진도북춤단독 공연과 함

께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전통 가락과 아름다운 한복 복장으로 멋있는 진도북춤 공연을 해주신 김향자동문의 공연은 행사에 참가한 많은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항상 한국 전통문화를 내/외국인들에게 알리느라 힘쓰신 김향자 동문님, 이번에도 준비 및 공연에서 열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임천빈 동문께서 곧바로 무대에 오르신 후 'Attitude is Everything: Life in Success'라는 주제로 영어 기법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임천빈 동문께서는 오래전 서울대학교를 문리대를 졸업한 후 북동부의 미시간대학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인류학도를 꿈꾸며 미국땅을 밟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미국도착 후 만난 지인과의 아주 우연한 대화를 계기로 앞날이 보장되었던 학자의 길을 마다하시고 샌디에고에서 Business Management 공부를 결정하시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다.

샌디에고 유학생들 초창기에 학비/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니저를 찾아가 과감히 던진 "I will work for nothing"이라는 영어 한마디와 함께 무보

수로 일한 후, 결국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초기 경험담은 많은 젊은 청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후 어렵고 힘든 도전이었지만 젊은시절 용기있고 열정 가득한 Attitude 덕분에 이 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며, 오늘날 샌디에고에서 수십개의 유명 쇼핑몰/호텔체인/제품공장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었다는 임천빈 동문의 연설은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샌디에고에 있는 젊은이들을 바다 표면에 드러난 빙산에 비유하시며, 모두가 보이지 않는 수면아래 무한한 잠재성(Potential)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며 멋진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김향자/임천빈 동문이 위와 같이 빛내주신 오프닝 무대 뒤로, 본행사에서는 젊은 소리꾼 홍송희씨의 퓨전 판소리, SDPKI의 사물놀이 그리고 K-pop 댄스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행사를 더욱 빛내주신 김향자/임천빈 동문님과 뜻깊은 행사에 귀한 시간을 내주시며 참석해주신 동문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 황정빈(사회대 02), 사진: 김주성(농대 83)〉



조지아 : 문턱 낮춘 건강프로그램



고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병원은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월회비를 납부하면서 특별회원으로 등록, 주치의의 통제를 통해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특별 멤버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건강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전립선 암검사 등을 포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피부 결핵 반응검사, X-Ray, 골다공증, 심전도, 폐기능, 독감예방, 파상풍 예방 등 연 4회 정기검진이 가능하다. 또 필요할 경우 8번의 추가 진료와 상담이 가능하며, 아울러 초음파와 심장초음파, 알부민 주사, 비타민 B주사 등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50세 이상은 월 100달러, 40세~49세는 월 75달러, 그리고 40세 미만은 월 50달러에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다.

강창석 원장은 멤버십 프로그램과 관련,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보험 부담금이 높아지고 있고, 보험을 갖고 있어도 큰 질병을 제외하곤 일반 질병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병원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도깊은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며 "멤버십 프로그램은 주치의 개념으로 월회비를 납부하면서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곳은 환자와 30분 이상 문진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주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의사와 깊은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이곳을 찾고 있다.

강 원장은 "멤버십 회원들은 보험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알찬 진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의사가 환자 개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며 "병원의 문턱을 크게 낮춘만큼 많은 한인들이 멤버십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대형병원 IMI에서 코퍼레이트 메디컬 디렉터로 30여년간 임상경력을 쌓았다. 2008년 애틀랜타로 이주해 디캡 메디컬센터에서 내과과장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 존스크릭에서 강창석 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770-497-4188 주소: 10710 Medlock Bridge Rd, Suite 150, Johns Creek GA 30097

워싱턴 : 모교 입학설명회

워싱턴 DC 지역 한인들을 위한 모교 입학설명회가 지난 24일 버지니아 비엔나의 한미과학센터에서 열렸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설명회에서 권오현 입학본부장과 유혜영, 최예정 입학사정관이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대

학원 등에 대한 입학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입학 상담을 진행했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이길 인재 발굴을 위해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설명회를 갖게 됐는데, 많이 참석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예정 입

학사정관은 "한해 평균 1,200 명 가량이 글로벌 인대 전형에 지원하고, 이중 100명 정도가 입학하고 있다"며 "서울대 입학에 관심을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성실히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인 2세들이 관심을 갖는 모교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은 부모가 모

두 외국 국적인 학생, 또는 조 중 고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정원 외로 연 2회 선발하고 있으며 학업능력, 어학능력, 과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모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에서 볼 수 있다.



왼쪽부터 오재환 워싱턴동창회 골프회총무, 서울대 유혜영 입학사정관(임장), 최예정 입학사정관, 권오현 입학본부장, 오인환 미주동창회 명예회장, 정세근 워싱턴 동창회 회장



뉴욕 : 김정향 전시회 / 미대동문 그룹전시회 / 탈북난민 구출음악회

김정향 전시회

자연과 소통하는 작가로 잘 알려진 뉴욕 중견화가 김정향(미대 73) 동문이 이달 21일부터 6월 1일까지 맨하탄 켈시의 한인화랑 '아트모라' 갤러리(547 W 27TH St., Suite 307, New York)에서 개인전을 열고 화사한 봄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보여준다.

김 동문은 꽃이라는 매혹적인 형상과 동그라미, 점 등을 주제로 사용해 서정성을 보임과 동시에 논리적인 기하학의 세계를 꽃과 대치시킴으로써 독특한 이중성의 미학을 표현하는 회화작업을 해오고 있다. 김 동문은 1977년 모교 회화과를 졸업 후 도미해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5년 뉴욕, 윈도우스 온 화이트 갤러리에서 가



뉴욕·뉴저지 미대동문 그룹전시회

'전문적 미술활동을 통해 미주류사회와 동포사회에 문화적 기여도를 높여나간다'는 뜻을 품고 개최되는 뉴욕/뉴저지 미대동문 2016 전시회가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뉴저지에 있는 Riverside Gallery에서 열린다. Opening Reception은 5월 21일(토) / 특별 초청 Reception은 5월 28일(토) 두번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5월 28일 특별초청 리셉션은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위한 행사이다. 전시회에는 PLATT 대학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임종식 교수(57/서양화), 전 한양대학교 미대 학장을 역임한 김광현(57 / 디자인) 동문등의 대선배로부터 최근 졸업한 2000대 학번까지 17명의 작품이 한곳에서 어우러져 전시될 예정이다. <권문웅(미대 61)>

*Riverside Gallery: one riverside square,suite 201(2nd floor), Hackensack, NJ 07601 (Tel. 201-488-3005) : Hackensack에 있는 Riverside Shopping Mall 안에 있는 부르밍데일 백화점(성조기 계양대가있는쪽) 2층에 있음.



토론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안병원 선생 추모 음악회



“우리의 소원” 작곡자 고 안병원 선생(음대 46, 사진)의 서거 일주기를 맞아 추모 음악회가 열린다.

안병원 선생 추모 음악회 준비 위원회(위원장 유종수)가 주최하는 '안병원 선생 추모 음악회'가 7월 9일(토) 오후 7시 30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천주교회(849 Don Mills Rd.)에서 열린다.

진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대미술관(뉴욕), 소호 미디어드 갤러리(아틀란타), 100브로드웨이(뉴욕), 갤러리 89(프랑스), 예맥갤러리(서울) 등 뉴욕을 중심으로 서울, 프랑스 등에서 20회 이상 개인전을 가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92년 렌슬레이 카운티 문화협회가 수여하는 아티스트 그랜트와 85년 아티스트 스페이스가 주는 그랜트상을 받았다. 2007년에는 뉴욕시 공공미술 프로

젝트로 브루클린 크리스텐트 역에 '꽃바퀴' 주제의 7개 작품을 설치했다. 특히 2009년 안토니오 지오다노(뉴욕)에서 가진 개인전은 뉴욕타임즈에 실리며 크게 호평을 받았다. 그 외 에이미 사이먼 파이아트(웨스트 포트), AAC(뉴욕), 메타포 현대갤러리(브루클린), 2x13갤러리(뉴욕), 금호미술관(서울), 아트대구 특별전(대구)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전시 오프닝 리셉션은 21일 오후 6~8시다. ▲문의: 212-564-4079

'탈북난민 구출음악회'

서병선(음대 65) 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뉴욕 예술가곡연구회의 제33회 '탈북난민 구출음악회'가 5월 1일 뉴욕 후리스에서 열렸다. 70년 가까이 남북으로 갈라진 혈육의 슬픔과 아픔을 아우르고, 통일염원의 민족 정서를 아름다운 가곡을 통해 전달해 온 서 회장은 이번 음악회가 특별히 탈북난민들을 구출하는 사역에 쓰여지길 원한다며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1,400명의 탈북자를 한국과 미국으로 구출시켜 온 천기원 선교사와 '두리하USA'(이사장 조영진 목사)에게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뉴욕 그레이스 여성 합창단이 특별출연하고, 소프라노 성이현 동문과 테너 김성욱 동문등 뉴욕 정상의 성악가들과 주디 강의 바이올린 연주, 출연자 전원의 복사중창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뉴욕 예술가곡 연구회는 1986년 창립연주 가곡의밤 이후 지금까지 매년 2번의 연주회를 통해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탈북자 돕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서병선 동문은 뉴저지 팔복한인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가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용복 (공대 58)

수많은 오페라를 제작 감독한 이태리의 비스콘티 (Visconti, 사진)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천당에 갔다. 어느날 베드로 사도가 찾아와서 “하느님께서 새 오페라를 감상하고 싶어 하시는데 당신이 말아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하였다. 비스콘티는 “오페라란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베드로 왈 “내 말 좀 들어 보시오. 각본은 셰익스피어가, 음악은 모짜르트가, 무대 장식은 다빈치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 비스콘티는 “그렇다면 잘 못될 리가 없겠군요” 하고 승낙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은근히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내 여자 친구가 성악을 좀 하는데”

이것이 오페라이다. 많은 예술인들의 창작과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지는 종합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쉽다고 한다. 오죽하면 감독들이 안도의 한숨을 두번 쉬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는가. 처음 막이 올라 갈 때가 한번이고 마지막 막이 내려 갈 때가 두번이다.

오페라(opera)는 (미국인들은 ‘아퍼라’라고 발음하는데) 라틴어에서 온 말로 작품(works)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전음악에서 ‘오퍼스(opus) 몇 번’ 이라고 작품 번호를 쓰는데 이 오퍼스도 오페라와 어원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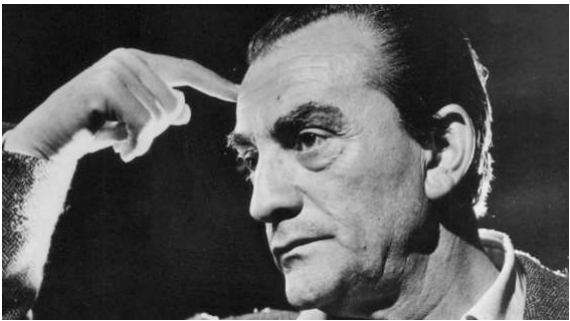
오페라는 작품들 중의 작품이다. 우선 내용부터가 그렇다. 허탄 신화, 성경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희비극, 불후의 문학 소설들이 줄거리가 된다. 이것을 대본 작가(librettist)가 대본(libretto)으로 바꾸는데 이 과정 역시 창작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작곡가들이 글에다가 소

리를 붙인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사운드 어브 뮤직>의 로저즈와 해머슈타인같이, 대본 작가와 작곡가가 호흡이 맞아야 한다. 모짜르트와 다 폰테(Da Pon-te), 푸치니와 일리카(Illica) 및 자코자(Giacosa)는 명품비였다. 이 과정에서 단체 발레와 민속 춤과 여흥과 합창이 들어간다.

연출이 시작된다. 제작 감독은 우리가 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음악 감독은 우리가 듣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작 감독은 무대 장치, 조명, 의상, 연기, 무용 등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음악 감독은 오케스트라 지휘는 물론 가수들의 성악에 신경을 많이 쓴다.



화가 Hirschfeld가 그린 '도밍고, 카레라스, 파바로티'



Lucino Visconti

지휘자가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하면, 가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불러 보지요” 하고 대답하면서도 “지난 십년 동안 이렇게 불러 왔는데 바꾸라니 말도 안되지” 라고 생각하고는 전과 똑같이 부른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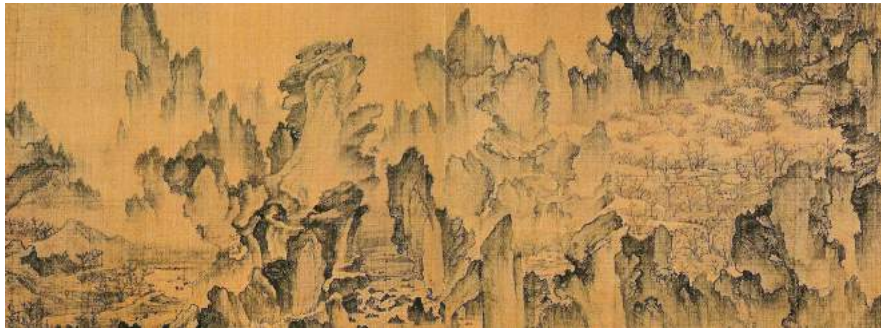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감독들간의 의견 차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예술인들은 처음부터 의견 차이도 많지만 서로 양보하는 힘도 커서 훌륭한 공연이 되는 것이다.

연습이 끝나고, 막이 오른다. 화려한 무대에서 풍만한 여인이 아리아를 부른다. 애인이 따라 부른다. 그들을 에워 싸고 있던 조연 가수들도 합세한다. 독창이 이중창이 되고, 이중창이 사중창이 된다. 다중창으로 변하고 오케스트라도 절정을 이룬다.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중들은 웃기도 많이 하지만 울기도 무척 한다. 감수성이 많은 젊은 여인도 많이 울지만 추억만 남은 노인들 눈물로 앞이 안 보일 정도다.

어느 피아노 독주회에서 한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듣더라. 음악을 얼마나 잘 알기에 저렇게 울면서 감상을 하나 하고, 끝난 후에 “할머니는 정말 음악을 잘 아시는군요” 하고 말을 붙였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피아노 치던 죽은 딸 생각이 그렇게 나는구면” 하 시더라.

이렇게 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바이올린 선율에 눈물이 저절로 나듯이, 소프라노의 성악을 들으면 가사를 몰라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것이다. 바이올린이 모든 악기 중에서 제일 사람을 받는 이유가, 육성과 제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물며 육성에 있어서랴. 더구나 아름다운 시로 표현된 가사를 알고 있으면, 더구나 그 내용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나의 꿈, 로맨스, 환상을 그리는 것이라면, 흐느끼며 듣지 않을 수 없다.<계속>

[미술] 몽유도원도 무의식을 흐르며



아름다운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한 나라의 무의식을 흐르며 다시 나타나곤 한다. 복사꽃 만발한 숲에서 한바탕 꿈을 꾸고 돌아와 보니 도끼자루가 썩어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 박팽년과 함께 도원을 다녀온 후 안견에게 꿈에 본 바를 설명하여 그리게 한 것이라고 한다.

1447년 4월 20일에 착수하여 3일 만에 완성한 그림으로 웅장하고 환상적인 세계가 교묘하게 구현된 걸작인데, 봄날이면 그려보고 싶은 그림이다. 봄꽃의 향기를 어찌 그림 수가 있을까. 향기는 그림 수가 없다고 하나 실은 그게 아닌 듯싶다.

숲에서 사는 내가 숲 향에 젖어있었고 손끝이 청명하고 시선이 나무 숲 그늘을 닳아 서늘했다. 그림이라는 것이 캔버스, 유화라는 물질 에너지에 작가의 마음을 담은 것이니, 알 수 없는 향기에 그윽한 것이 당연한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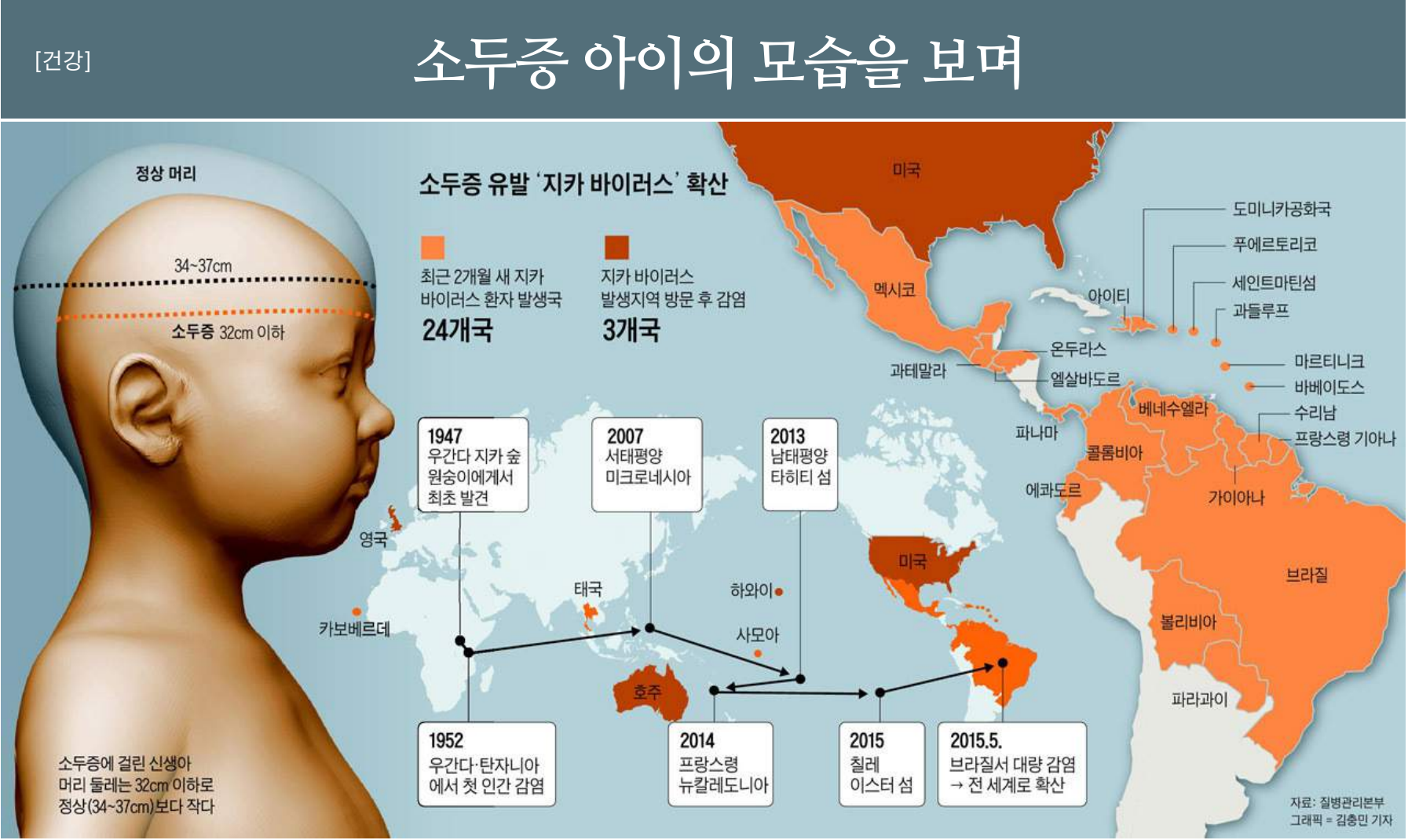
안견이 그린 복사꽃 숲은 전체의 숲이 너무나 커서 복사꽃이 핀 마을은 아주 작고 작은 분홍 색채의 숲으로 보이는데, 그곳에 살았던 선인들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게 그린 것이 또한 화가의 큰 마음일 듯싶다. 반가운 비가 내리고 가끔 지나다니는 버질 거리엔 분홍꽃들이 만발해있다. 곧 연보라 빛 자카란다 꽃이 가득 온 도시에 피어오를 것이다.



박혜숙 (미대 74)

안견은 꿈 얘기를 들은 즉시 그림을 그렸다는데 21세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나는 아마도 오래오래 그 꿈을 꾸어야 한 장의 그림이 태동할 듯 싶다. 꼭 그러한 그림을 한 장 그릴 수 있다면 조상이 전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으련만... 텅 빈 마음의 거울에 생생히 그 숲을 떠올리며 여제가 오늘날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이 시간 속에 녹아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한 가운데에서 미친 꿈을 꾸다. 미쳤다는 것은 어디에 닿았다는 것일진대 하늘과 땅이 닿은 그 자리, 봄 향기 천지에 가득한 그 자리에서 마음껏 봄 향기에 취한다.

저절로 어깨춤이 나는 시절의 흥취에 겨워 저리도 다정한 봄바람을 또한 어떻게 그릴까. 마치 바람이 된 것처럼 가슴을 활짝 열어 가벼이 봄을 뽐낸 손목을 움직이며 연분홍색 물감을 섞는다.



김동규 (의대 72)

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 공포의 대상이던 천연두,콜레라,장티푸스 등은 의학의 발달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염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해 태아도 감염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아는 뇌의 발육 부진이 초래되어 소두증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 발달 장애로 인한 소두증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심각하다. 정도가 심하면 어려서 사망하기도 한다.

의과대학을 막 졸업한 후 인턴 시절이니 꽤 오래전이다. 병원의 인턴은 전공의가 되기 전 여러 과에서 의학수기를 익히는

병아리 의사다. 5월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른한 봄날 오후에 만삭의 임신부가 출산을 위해 입원했다.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지만 웬일인지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복부 X선 사진을 찍었다. 태아의 머리와 산모의 골반 크기를 알기 위해서다. 지금은 보편화된 초음파 검사 가 없던 시절이다. 산도가 태아의 머리보다 작으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필름을 보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찔한 결과에 입이 벌어졌다. 태아의 골격은 있었지만 두개골이 보이지 않았다. 태아는 무뇌증이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뇌가 발달되지 않았고 따라서 두개골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사산하든지 살아서 태어나도 금방 사망하는 것이 보통이다. 두개골이 없으니 자궁경부를 밀어주지 못해 진행이 안 된 것이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분만 유도제를 투여하면서 어렵게 출산을 했다. 예상했던 대로 무뇌증이었다. 아기는 살아 있었지만 움직임이 아주 미약했다. 충격을 피하기 위해 산모에게는 사산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산한 아기는 부검 때문에 병리과로 보냈다고 돌려왔다. 가족이 산모에게는 사실을 말하지 말

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크게 실망한 산모는 서둘러 퇴원했다. 지금까지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받는 시대에는 벌어지지 않을 상황이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해결되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상태가 아주 위중했지만 살아 있는 아기 때문이었다. 부검을 하기로 했으니 병리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살아 있는 사람을 병리과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신생아는 신생아실로 가야 한다. 그러나 신생아실의 의료진과 아이 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받지 않으니 산부인과에서 돌볼 수밖에 없었다. 뇌가 없는 중증 장애아는 들릴 듯 말 듯 울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봄비까지 부슬 부슬 내렸다. 모두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아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계획했던 대로 병리과로 보내졌고 절차상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초보의사의 충격은 컸다. 지금도 힘없이 흐느끼던 무뇌증 아이의 특징적인 얼굴이 눈에 밟힌다. 약 40년간의 의사 생활을 돌이켜 보건대 이때만큼 황망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무뇌증은 뇌가 거의 없으나 소두증은 뇌의 일부에 결손이 있는 경우다. 따라서 무뇌증은 소두증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뇌증은 지카 바이러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미에서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아이가 많이 태어났다. 경험했던 무뇌증과 많이 닮은 TV 화면 속 소두증 아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박멸되었다고 여겼던 전염병이나 지카 바이러스 같이 위협적이지 않았던 감염병들이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다. 식자들은 기후변화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올라 모기가 창궐하기 때문이란다. 지카 바이러스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 바이러스 사태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우리 보건당국 또한 서둘러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다면 특히 우리들의 어린 생명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메르스 사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서울대 의대 교수/신경외과학〉

원 고 모 집 합 니 다

편집회의가 열리는 동창회본부 회의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요란하다. 아침부터 저녁 편집회의까지 조금 피곤해 보이는 편집장. 한국방문 마치고 미국시간에 적응하느라 거의 절반 수면 상태에 계시는 회장님. 2 시간 운전 끝에 도착한 후, 뉴저지 스타벅스와는 무척 다르게 한가한 필라의 스타벅스 커피로 버티고 있는 분. 퇴근길에 열심히 달려오신 편집위원 등. 여덟명이 모였다. 5월호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의논 후 저녁식사로 오늘의 주제부 고등어 김치찌개등을 잘 먹은 후, 새 기분으로 다음달 주제를 의논한다. 언젠가 주제로 올랐던 '만일 당신이 시간적, 공간적, 아무런 제약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They Call Me an Atheist' 라는 책의 저자답게 '없음' 하시는 철학박사님, "우리집 사람 아니라고 하면 맞아 죽을수 있어", 라고 웃으시는 모 위원님 (옆지기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김시습",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 옛날의 친구남자재", "예수님", "아브라

함 링컨", "슈베르트", 등의 이름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진 질문 - "이유는?" 에 각자의 기발한 대답으로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만일 이글을 읽고 계신 동문님 자신이라면

1. (누구)와 만나서 그렇게 대화하고 싶으세요?
2. 이유는 (??) 이기 때문입니다.

6월에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동문님들의 진솔한 글을 기다립니다. 50단어(글자수 200자) 이내로 짧게 써서 news@snuaa.org 로 보내주세요.

이 외에도 일반 원고를 함께 모집합니다.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25면 참조)과 '서울대 학창시절의 사진'도 보내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든가, 셀폰(고화질)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집위원회>

가족에 대한 의미는....

나의 나이에 따라 달랐다.
어렸을 적에는 I took everything from my family
'for granted.' 모든 것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나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갖고 나서는
나 아닌 남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했고
내가 지나온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다.
아이들의 Achievement 는 내 것으로 여겨졌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척척 이루어 나가는
아들이 고맙기도 했다.

지금은 가족이 내 생의 전부다.
나의 가족이 있는 곳이 나의 직장이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나의 종교가 되었다. 이전 아들은 결혼해서 나가고,
지난 54년 동안 한결같은 남편과 우리 딸 선이가
나의 가족이다.

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Multiple Sclerosis 로 같이 살지만,
Wheel-Chair 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
하늘이 내게 보내 준 천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두 고집쟁이가 모여 사는 곳에
결혼에 금이 가지 않도록
지켜 주는 천사이기도 하다.
신성식 (공대 56)

“가정밖에 낙원 없다, 잘 가꾸어 행복 찾자.”

1977년 5월 어떤 일간신문 표어모집 최우수
당선자인데 우리 부부 합작품이었다.

가정은 낙원이고 행복의 공급처이다.
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영어로 아우성을 했다.
“학교는 감옥, 우리 집은 지옥”이란다.
부모는 교회개혁에 바쁘고, 가난하고, 주말도
없고.... 나의 유학생활을 도와주던 어머니뿐
백인여성 한 분이 있었다. 플로리다의 그분 집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매우 가정적이었다.
그래서 'a homely lady'라는 찬사를 했더니 의외로
언짢은 내색이었다. 'homely'는 영국영어와 달리
미국에서는 '얼굴이 못 생겨서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여자'란 뜻이란다.

그래도 가정은 야구의 '홈 베이스'이다.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종착점이 된다. 게다가
출발부터 죽기살기로 사명을 완수해야
우레박수 속에 돌아오는 그런 홈 베이스 아닌가.
이정근 (사대 60)



내 삶의 알파요 오메가이며

생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주변을 맴돌며 컸다.
성인이 되어 짝을 만나 다음 세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고,
때가 되어 자녀는 나아가 새 가정을 이룬다.
두루 생을 영위하다가, 가족들에 둘러싸여
내 생이 마감될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와서 가족에게서
떠나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가족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가족을 위해 사는가? 대답할 수 없으니 만큼
연결되어 서로가 생존유지를 위해 돕는다. 가족은
조상으로부터 후세로 이어지는 나의 연장이기도
하고, 나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의
출발 근원이기도 하다.

가족의 존재 양상은 생존유지를 위한 먹이 확보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태고로부터 꾸준히
변해왔다. 나는 대가족 문화에서 자라나 막 핵가족
문화로, 즉 농업사회에서 산업경제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두 문화는
부딪히고, 갈등하고,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달라져가는 환경에 적응 변화하였다.

남녀 양성(兩性)존재 이유가 인류 생존유지에
단성(單性)재생산보다 우월하기에 스스로(自然)
그러하다. 족외 결혼을 통하여 다른
유전자(gene)를 받아들여 후세의 생존유지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가족 형성 관습도 자연적이다.
자연에 도전하는 것이 과학인가? 과학의 발전은
인간 출생과 생존유지 방식에 꾸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남녀 및 가족관계 존재
양상은 앞으로 계속 변화해 갈 것이다.
김상순(상대 67)

'나에게 가족이란...'



보호막이요, 사랑이요, 존경이요,
서로 협력하는 구성체이고
언제나 삶을 동행해주는 일원이지요.

부부와 자식뿐 아니라,
키우고 돌보는 애완 동물과 화초들도
가족의 일원이라고 봅니다.

사랑과 화평과 운유로
가족은 서로 돌봐야 합니다.
임창주 (공대 55)



I love you a lot and always will.
We know that you'll always love us too,
you'll always care for us, no matter what the age.
Just know no matter what you do,
no one will be able to replace you.



HomeSweetHome

부모, 자식, 부부등의

관계로 맺어져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가족의 원래 뜻은 덮는다는 뜻에서
나와 가정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나에게 가족이란 서로를 덮어주고, 감싸주며,
이해하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구성체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을 때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은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는
형제애가 돈독하고,
집안 분위기가 화기에애하며,
정서적으로 균형잡힌 생활과
종교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갖는
인적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가족의 중요성은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사회화의 기능을 잘 담당하며 자율과 평등,
개인중심주의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데
있다고 나는 보고 싶다.
김영덕(공대 53)



저는 시카고대학에서

포스트닥터 과정에 있는 박성진입니다.
어머니가 제 10살 때 질병으로 떠나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양육과 교육에 집중하고자 재혼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견들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말했는데”라는 옛 이야기를 들곤
했습니다. 언제나 “네 엄마” 가 아닌 “엄마”
였습니다. 아버지는 대화의 중심에 저를 두었고,
제 말들도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자세히 들으며
생각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결정들에 제
의견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제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대화/토론 기술을 익히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아내의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왜 제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오래 전에 제 곁을 떠난 어머니가 제게 남겨둔
가장 큰 유산은, 가정의 민주화를 이끈
제 아버지입니다.
저도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박성진 (자연대 02)

어머니의 자궁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다.
죽어서 간다는 천당이나 지옥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리워하는 것은
내 가족이 아닌가 한다.
홀로 먼 여행을 떠나 어느 호텔에
머물 때 가슴 찢히게 밀려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가족은 울타리이자,
기댈 기둥이며 죽을 때 가장 못 잊어
눈을 감지 못할 궁극적
그리움의 대상일 것이다.
이경림 (상대 64)



나를 믿어줌으로

나의 위치를 생각하게 하고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게 한다.
마음에 안정을 줌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고
여러 모임에도 한몫 끼어줄 수 있어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게 한다.

자기 가족이 중요한 만큼
남의 가족에 대한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나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온다.
나에게 가족은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하는
나의 최대의 후원자이다.
나두섭 (의대 66)

동행

오늘도 뽀짝이는 별빛을 보며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가
사랑 때문에 찾아온 이곳
가슴 아픈 일이 생겨도
당신이 옆에 있기에
얼마나 다행한 사실인가
수많은 별 빛이 스치고 간 이 길
아름도 괴로움도
바람이 거두어 간 이 길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지나간 추억이 다시 오지 않아도
당신과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가.
박윤수 (문리 48)

숭인동(崇仁洞)집 72 번지

동묘앞 정거장에서 전차가 서면,
저녁 뽕새 스며드는
북쪽 골목길 올라가
사랑채 옆 대문 열며
“엄마 나 왔어, 밥주세요!”
개나리 만발한 어느 봄날
동묘앞 정거장에서 전차를 내려
마누라, 아이들 손잡고
그 골목길 따라 올라가
사랑채 옆 대문 열며
“엄마 우리 왔어, 밥 주세요!”
국화꽃 향기 스미는 어느 가을 저녁
동묘앞 정거장에서 전차를 내려
마누라, 아이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손잡고
저녁 뽕새 스며드는 북쪽 골목길 왼쪽 언덕,
사랑채 옆 우리 집 큰 대문 열고 들어가
사당 앞에
큰 절 올리고 싶다.
“저희들 왔습니다”
지금 쯤 반야심경 외며
은하수 길 걷고 계실 우리 어머니,
은하수 길 걷고 계실 우리 아버지

p.s ; 아버지님, 어머니님, 평안(平安)하시죠?



조종형 (의대 63)



섬기는 부로 살기

졸업후 유학길에 올라 이민 1.5세의 남편을 만나 미국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건네주신 책이 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여섯 자녀를 모두 미국 명문대에 보낸 전혜성 박사 부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법서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도전정신이 강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일 뿐 아니라, 늘 나의 인생의 진로결정에 정말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셨기에 엄마가 추천하신 책을 전해받으며 이미 호기심이 가득 일었다. 글을 읽어 나가는 중에 간파한 그 분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핵심적 항목들이란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떠한 훈련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섬김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내 나라가 아닌 곳에 살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켰다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늘 잊지 않도록 그 매일매일의 생활이 곧 올바른 리더쉽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일단 여섯자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룹을 이룰 수 있는 숫자는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것또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삼남매를 얻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실상 여태까지의 삶의 패턴이 곧다박질쳐졌다. 가족들의 도움 없이 달랑 우리부부만의 자력으로 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잠은 제대로 못자고 그래서 하루가 늘 엉망이었으며, 이대로 몇 년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끝이 안보이게 이어지는 마라톤같은 아가 기르기가 다행이 아이들이 순한 탓에 수월한 면은 없잖아 있었지만, 둘째의 심한 유아습진과 알레르기, 세째의 기관지염 등으로 심신이 지칠 수 밖에 없었다. 책에서처럼 섬기는 부모로서 본보기가 되어 훌륭하게 아이들을 양육해보고 싶은 그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나 시작 가능했던 것이다.

아이들이 유아기를 넘기고 아동기에 접어들었다가 이제는 모두 초등학교이기에 우리 가족은 가족이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10년전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그 책을 이제서야 실천해볼 때가 된 것이다. 그 책의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직접 따라해보기 위해 그 동안 집에 맞지 않는 커다란 책상을 두 개 씩이나 들여놓았으면서 또 아이들 책상을 똑같이 사서 한 방에 배치해주었다. 역시나 생활 패턴 자체가 숙제를 하건, 그림을 그리건, 앉아서 손가락을 조물거

리며 놀건 늘 책상에서 지내도록 바뀌었다. 또한 먹을 중요시 하라는 저자의 말에 최대한 공감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교제하는 일에 진력하며, 과외활동은 악기다루는 일 이외에는 배제하고, 스카웃 활동과 팀스포츠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시야를 넓히게끔 아이들을 돕고 있는 중이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한 회고라면 어렵지 않겠지만, 다가를 결과를 상상하며 지금 시작하는 일에 대해 쓰자니 기대감과 불안함이 공존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또한 해보지 않은 일이므로. 아이들은 아직은 먹을 검비하기보다는, 차를 탔을 때 어디에 앉을까에서부터 시작하여, 투쟁으로 음식을 쟁취하기도 하고, 누가 플레이데이트를 더 많이하나, 누가 청찬을 많이 받나를 은연중에 감시하며, 밤에 잠들때에도 엄마아빠의 옆자리를 독차지하려고 싸우다 아침에 자리가 뒤바뀌면 이내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감정의 곡선을 계속 그려가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

그러나 조그마한 발전이라 여겨지는 일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혹은 다른 학부형들에게서 아이에 대한 칭찬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미국인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놀러도 되냐고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을 때 참 뿌듯하기 그지 없다. 일단 바로 놀이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먼저 한다거나, 재미있게 놀고, 또한 음식을 잘 먹으며 흘리지 않는 다거나 하는 이유라고 칭찬하기 때문이다. 집에서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의아하긴 해도 한편으로 미소지을 수 밖에 없다.

오늘도 나는 아이들이 없을 때 부지런을 떨어 청소하기 보다는 최대한 내 일에 집중하며,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같이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 것이며 또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때 내 자신만의 일도 할 것이다. 부대끼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중에 감사하고 섬기게 되는 생활습관이 꼭 생길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이다. 좋은 방향으로 자라나는 이 삼남매를 보며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섬김의 본보기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될 건강한 가족을 꾸려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진밀감이 바탕이 될 건강한 섬김이 나아가 건강한 리더쉽으로 발전된다면 더없이 보람있을 것이고, 또한 리더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 또한 아이들이 점점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박초현(음대 94))

나의 시어머니



서안희 (간호 63)

결혼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남편은 미국으로 먼저 떠났고 비자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날 서울 큰 시누이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하게 되었다. 국수를 먹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국물에 들어있는 무미의 국수를 싫어한다 하니 까 큰시누이가 듣고 반갑게 “어머니 하고 같구나. 어머니도 국수 싫어하신다.” 하시며 “너희가 어머니를 모셔라.” 하신다. 나는 갑작스레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터라 내심 당황스러워 대답을 못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 하니 엄마가 “너 대답 안했니?” 하신다. 대답없는 팔을 보시더니 “너 대답 안 했구나. 왜 선뜻 네 하고 대답하지 그랬어?” 하신다. 여전히 말이 없는 막내딸을 보시며 “네 자식도 저런데 남의 자식 말해서 무엇해” 한탄하듯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나의 가슴 깊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헤어질 때는 꼭 내손에 돈을 쥐여 주셨다. 한번은 엘리베이터 속까지 따라 오셔서 1 INCH 도 안되는 작은 종이 덩어리를 내 손에 쥐여주시고 급히 엘리베이터를 나가셨다. 궁금해 보니 접고 접고 또 접은 그때 막 새로 나온 오만원인가 하는 새 지폐였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혼자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 뵈러 부산에 갔다. 저녁에 어머니와 나란히 잠자리하고 누웠는데 등만 대면 잠드는 나의 귀에 어렴풋이 “아이 예쁘기도 하지, 예쁘기도 해라.” 하시며 이불을 끌어 덮어 주셨다.

시집와서 처음으로 시집서 잠을 자니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은 먹고 잤는데 눈뜨니 날은 벌써 밝은 듯한데 눈은 떠지지 않고 더 자고 싶었다. 그래서 먼저 깨어 옷 갈아 입고 단정히 옆에 앉아계신 어머니께 “어머니 오분만 더 잘게요” 하고 엄마한테 하던 버릇대로 했다. 그랬더니 의외로 “오분이 아니라 다섯시간이라도 자라.” 하시지 않나! 마음껏 자라고 하셔서 기뻐

웃음이 나며 마음놓고 더 잤다. 깨고보니 아침상이 차려있어 어머니와 식탁서 손에 물한방울 안 묻히고 맛있게 먹었다.

편찮으셔서 뵈러왔던 엄마가 세상을 떠셨다. 나는 한국어 임신 초기의 아이를 유산하여 얼마 쉬었다 미국집으로 가기 전에 부산에 가서 어머니를 뵈었다. 어머니는 막내며느리 먹으라고 큰 자물을 쟁반에 담아 꺼서 접시에 놓아주셨다. 훑아서 까놓아 주시는데로 맛있게 덤씩 덤씩 집어 먹었다. 내가 해드려야 하는데 꺼꾸로네 하고 속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맛있게 잘 먹었다. 결혼 후 몇년 지나도 아이소식 없는 며느리에게 한번도 왜 그러냐 질책의 눈길이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단 한번 편지에 “나무도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는 아니라도 한 가지는 있어야지” 하신게 다였다. 그러나 유산으로 상심하고 있는 나에게 어머니는 “다른 생각 말고 네 건강이나 잘 챙겨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셨다. 대답도 못하는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울었다. 유산 때문에 울고,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울고..

어머니가 위중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갔으나 어머니는 이미 운명하셨다. 막내아들이 오나 싶어 기진하셔 말도 못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찾는 눈빛으로 방문계를 지켜 보셨다 한다. 벽차오르는 감정에 열결예배 후 장지에 안장하기까지 펄펄 눈물이 흐르고 흘렀다. 돌아가신 후 가장 아끼던 물건을 불사를 때 내 손으로 해드린 원피스가 선택되어 불살라졌다고 들었다.

지난 5월 우리 네 식구가 부산의 어머님 묘소를 찾았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막내아들 식구 보시기를 기다리시던 어머니, 두 아들 손주들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Harvard 의과대학생과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치과대학생이 된 두 손주들을 친히 보셨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인사드리고 산소의 잡초를 뽑고 돌아왔다. 순결과 열정의 사람이 연상되는 흰 장미, 붉은 장미를 묘소옆의 화병에 꽂아 드렸다. 두 아들들에게는 할머니가 얼마나 자식들과 남에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큰 사랑을 베풀며 일생을 사셨는지 다시 한번 일러주었다. 가장 반겨주셨을 분이 땅위에 안계서 허전하고 애석한 마음을 누를 길 없었다.

다면 미친 놈이다. 두려운건 두려운거고, 슬픈건 슬픈거다.

‘눈앞에닥친 공포에비해천국은 초라할 정도로비현실적으로보인다’ - CSLewis. 그래서 이곳에 왔다. 그렇게 먼저 죽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다. Jesus Christ. 그를 보고 그 앞에 앉는다. 이것을 Pray 라고 부른다.

케빈 하 목사 부부가 코넬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LA 다운타운의 유명 Law Firm에서 잘나가다가 집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 부인 Grace도 덩달아서. 다운타운 나이트클럽, 햄버거가게에서 예배장소를 빌려줬다. 이제 Spring 길에 조그만 극장을 하나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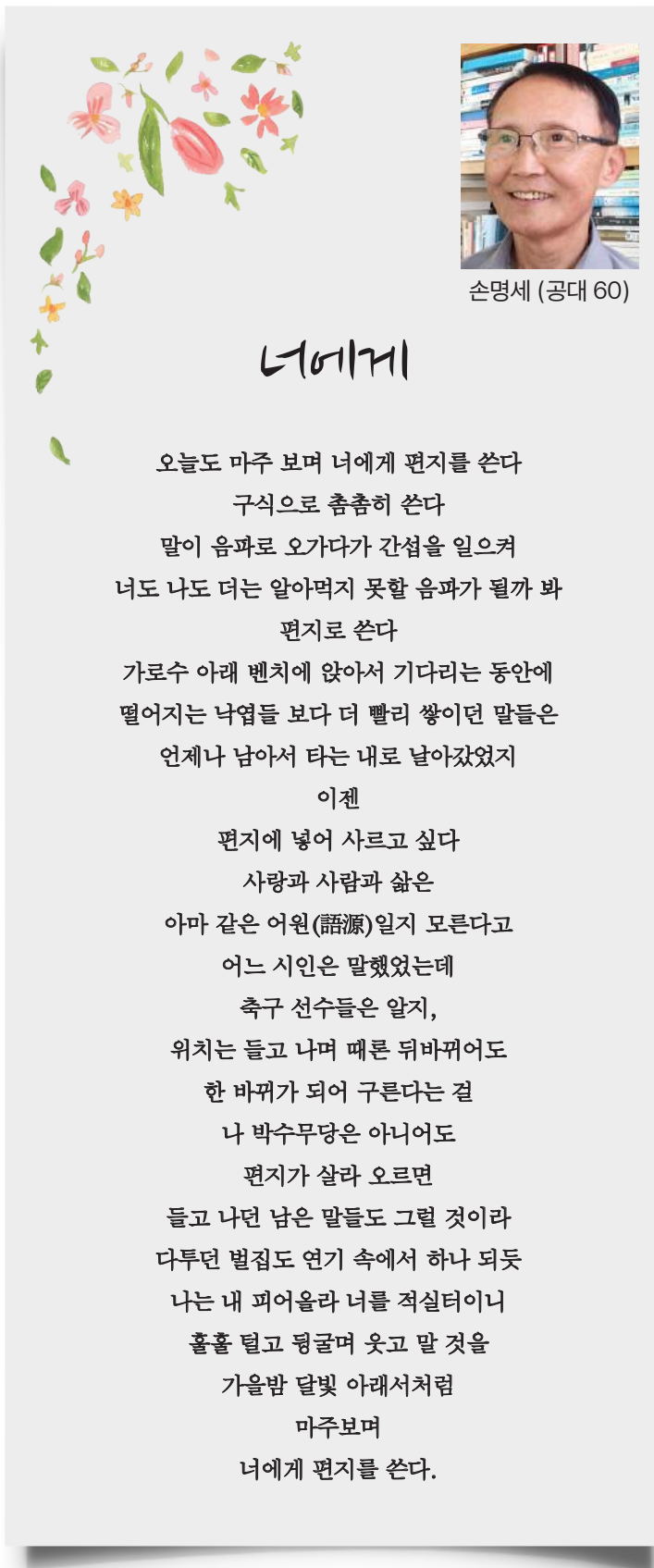
“좋은 소식 Good News'를 전할 뿐만 아니라 ‘좋은소식’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

니다. 그냥 사랑한다. 남들이 보기에 깔끔하고 잘나가는 인제들이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간다는 비전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자신이 더 오염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케빈목사’는 예수가 부르는 노래이다. 교회문 밖 휠체어에 앉은 자의 웃음소리가 다운타운을 찌렁찌렁 울린다. 이들 모두가 그에게는 가족이다!

“Jesus set you free!”

*케빈 하 목사 (사진)는 강영호 (의대57), 김재신 (음대 60) 부부의 사위이다.



오늘도 마주 보며 너에게 편지를 쓴다

구석으로 촛촛불 쓴다

말이 읊파로 오가다가 간섭을 일으켜

너도 나도 더는 알아먹지 못할 읊파가 될까 봐

편지로 쓴다

가로수 아래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떨어지는 낙엽들 보다 더 빨리 쌓이던 말들은

언제나 남아서 타는 대로 날아갔었지

이젠

편지에 넣어 사르고 싶다

사랑과 사람과 삶은

아마 같은 어원(語源)일지 모른다고

어느 시인은 말했었는데

축구 선수들은 알지,

위치는 들고 나며 때론 뒤바뀌어도

한 바퀴가 되어 구른다든 걸

나 박수무당은 아니어도

편지가 살아 오르면

들고 나던 남은 말들도 그럴 것이라

다투던 별집도 연기 속에서 하나 되듯

나는 내 피어올라 너를 적실터이니

홀쏘 털고 뽀글뽀글 웃고 말 것들

가을밤 달빛 아래서처럼

마주보며

너에게 편지를 쓴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가 태어났던 종로구 당주동 집은 지금도 있지만 보통 집 문간방이었는데, 큰형과 누나, 또 작은형은 그 건넌방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며 소곤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50세의 아버지는 동네 창피하고, 또 늙어서 칼 치우기 어려우니 지워버리라고 하셨지만 신앙심이 돈독하셨던 나의 어머니는 혼자라도 키울 것이니 걱정 마시라면서, 우겨서 나를 나오셨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리고 5개월 후 6·25동란이 터졌으니 부모님 걱정이 어떠하셨을 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그때는 그저 참 힘들었겠다고 막연히 상상만 하였었지만, 자식 둘 낳고 50이 된 지금에야 그 때 우리 부모들의 다급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는 영양상태가 안 좋으셨으니 쪼티 잘 안나왔고, 우유라는 것은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 피난 나가 있던 금곡 큰

처 농가에서 아침 먹은

다음부터 저녁까지는 큰형이 업고 종일 다니면서 놀았었고, 배가 고팠던 내가 마구 물어대면 큰형은 가끔 마을 아주머니에게서 동냥젖을 얻어 먹이곤 하셨다. 참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 고생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루는 아버지가 서울 가셨다가 양식을 좀 얻기는 얻었는데 청량리에서 금곡까지 그 먼 길을 지게에 메고 걸어오시다가 등이 다 까져 피가 난 것을 어머니가 닦아주시며 우시던 것이나, 그 식량 다 먹도록 전쟁이 안 끝나면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시던 말씀이 가끔 생각난다고 큰형은 말씀하신다. 그 때 동네에서 내 별명이 「올보」였는데 어렸을 때 많이 물어서 성대가 커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다.

〈의의인(공대 68)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글 중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두가 가족이다



김인종 (농대 74)

에서는 변소냄새가 난다. 오랜 세월, 밤새, 집없는 사람들이 길에 대소변을 봤기 때문이다. 그들이 LA다운타운 길거리에서 물레 오줌누는 거나, 내가 깊은 산길을 걷다가 나무사이에 숨어 오줌누는 거나 똑같다. 전자는 misdemeanor라고, 후자는 nature calls 라고 불린다.

곰쩍하게 더러워지면 목욕탕 열 건다. 영혼의 목욕탕. 이 종류의 목욕탕은 더럽고 가난한 곳에만 드물게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 목욕탕 주변거리

New City Church. ‘집없는 사람들 (Homeless라는 말보다 훨씬 정겹다)’과 다운타운 고층아파트 로프트 거주자들과 같이 예배를보는 장소다. 내적으로 얘기하면 거지와 부자가 같이 빨가벗고 목욕하는 곳이다. 영혼의목욕탕. 침침한 극장안에 들어서자 노래소리가 탕안을 가득채우고, 나는 벌써 땀이 난다. 눈물을 그렇게 부른다.

고국에서 청춘시절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soul mate가 암수술을 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 문병 절대사절!’ 여전히 씩씩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우울하다. 이곳 LA에서 영혼을 나누는 친구의 부인이 암치료를 하고 있다. 이럴때 하남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쁘다고 한

다. 그냥 사랑한다. 남들이 보기에 깔끔하고 잘나가는 인제들이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간다는 비전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자신이 더 오염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케빈 하 목사 (사진)는 강영호 (의대57), 김재신 (음대 60) 부부의 사위이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아시아언어영역학부에 재학중인 13학년 황다솔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생에 선발되어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아온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정이라는 조국은 특별한 환경 때문에 입학 후 늘 과외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당에 시달리며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갈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가정의 역할을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인재 장학금이 그토록 목적이었던 생계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선배님께서 보내주시는 응원 의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런 감사한 마음과 위로의 감정들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훗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후배들을 위해 제가 받은 격려를 더욱 크게 갚아나가며 선배님께 보답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

응원의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선한 인재 장학금

이렇게 쓰입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매월 생활비 30만원(\$300) 지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의 명단은 29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필요합니다

학기당 750명 대상

매년 27억원(\$2,700,000)

360만원(\$3,600)이 모이면 한 명의 학생에게 1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억원(\$90,000,000)이 모이면 기금 운용 수익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or.kr에 방문

하시어 미주재단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LA사무소

전화 +1-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1-212-768-9144 Fax:+1-212-768-4494 E-mail:kenneth@klcpagroup.com

L.A. 3699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Tel:+1-213-435-1974 Fax:+1-213-739-9010 E-mail:america@snu.ac.kr

[신간:장편소설]

바람의 얼굴



곽상희 (문리대 52)

뉴욕의 원로시인 곽상희(문리대 52) 동문의 장편소설 ‘바람의 얼굴’이 금란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다.

“재미 작가가 꿈꾸는 남북 통일의 꿈, 소설 ‘바람의 얼굴’에는 대한민국이 안은 남북통일의 정신을 주제와 소재로 삼고 있다. 오늘의 정치 국면과 문화 세계가 우리 모

두의 정서적 능선에 폭우처럼 쏟아진다. 소설이란 태두리를 벗어난 차라리 절박한 울음이다. 간절한 외침, 우리 민족이 부르는 아리랑보다 더 더욱 가슴 조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노래이다. 작가는 통일을 염원하며 역사와

문화 인간의 이상과 그 진실성, 사회와 종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 위에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 시인이자 소설가로서 갈피갈피마다 시를 삼입함으로써 독자의 정서와 감동을 부채질한다. 대사와 묘사, 시의 절묘한 조화가 “바람의 얼굴”에는 있다. 유수한 시인으로 타의 존경을 받는 그의 문장은 매끄러우면서도 상큼해서 더욱 호소력을 갖는다.” (평론가 최선호)

◆ 곽상희 작가 약력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과 졸(1956), <현대문학> 등단, 시집 7권, 수필 3권, 소설 장 중 단편, 영문소설 Two Faces/ 교육과 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올림포에트리 시인(스페인) UPLI 계간시인, 국내외 여러 시인상 소설상 수상/ 창작 클리닉(1984-) 운영, 영.한 시 워크숍, 미주 동포 사회에 치유 문학 강의 /UPLI Korea Affairs Director /Mov't One Board Men.

문의 Tel : 646-283-5658

E-mail:kwaksanghee9@gmail.com

매월 곽상희시인 인터넷넷필즈중



禪師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이석호 (공대 66)

나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즐겨왔을 뿐, 음악에 완전 門外漢이다. 그렇기에 여가다 쓰는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내가 베토벤의 음악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기술하는 것뿐이지 어떠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해둔다.

베토벤의 아홉개의 교향곡은 베토벤의 일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화주의자였던 베토벤은 혁명 후 피의 혼란기를 겪던 프랑스에 해상같이 나타난 나폴레옹이 유럽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1803년에 작곡한 교향곡 제 3번을 나폴레옹에게 바친다고까지 걸장에 썼으나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침공하면서 프랑스군에 의해 술한 인명 살상과 파괴와 약탈

위기가 변한다.

5번에서 느끼는 것은 “절망”이다. 결국 암흑의 봉건시대로 다시 복귀하는 유럽의 모습에 심한 좌절을 느끼면서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단념하고 스스로 인생을 하직하고 싶은 심정에서 이름도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6번에서 나는 베토벤이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저 무엇인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세상 만사를 다 잊고 입산하여 머리 깎고 중이 되고픈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던 중 지친 머리도 쉬게 할 겸 낙향을 했다가 시골의 아름다운 전원풍경 속에서 계절에 순응하며 아름답게 피고 지는 꽃들과 초목들, 그리고 그 속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의 모습에서 인간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속세와는 관계없이 쉬지 않고 묵묵히 대자연을 가꾸시는 조물주의 불변성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삶의 의미와 영감을 느꼈을 것이다! 마치 이상의 소설 ‘날개’의 마지막에 가서 작가가 갑자기 삶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나면서 “날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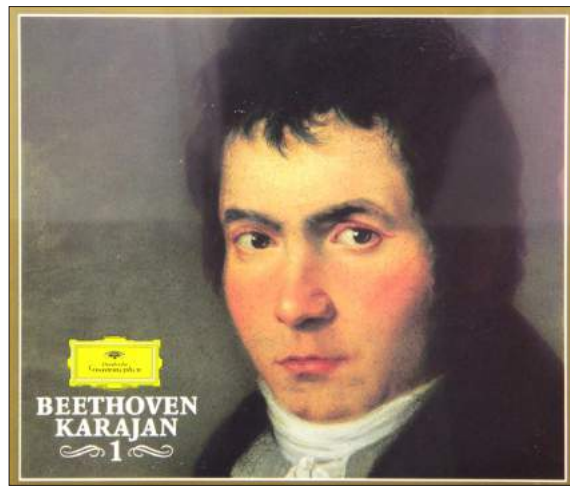
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체념과 그렇더라도 죽음 저편에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 곡을 지었지 않았을까. 8번 역시 7번의 연속..

9번은 마침내 먼 미래에 있을 “진실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뇌를 초월하고 내세의 영원한 환희를 생각하며 이것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 지었을 것이다. 마치 네로에게 불들려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기고 불에 타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았던 기독교도들이 부르던 찬미가 같은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5번 “운명”으로부터 6번, 7번, 9번을 차례로 감상해 본다.

베토벤을 배출한 유럽의 문화에서 나는 유럽의 정신문화의 깊이를 실감한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베토벤의 교향곡들의 작곡된 연대를 보면 적어도 5년부터는 베토벤이 청력상실로 거의 귀머거리가 된 상태에서 순전히 마음만으로 작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6번의 전원교향곡의 이 약장은 음악의 문



과 부녀자 겁탈 등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는, 구시대적 봉건왕조의 기득권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나폴레옹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교향곡 3번의 걸장에서 나폴레옹의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들었다. 실제로 교향곡 1번, 2번은 음악을 듣는 내 귀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마치 헐리우드의 뮤지컬같이 들린다. 3번에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켜보려는 시도를 느끼지만 아직 큰 감흥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4번 역시 그저 그렇고... 한데 5번부터 갑자기 음악의 분



돈아나라” 하고 외쳤던 것 같은.. 물론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누구에게선가 부각될 바 아서였다고는 하지만..

7번에서 나는, 6번을 지을 때 받은 영감에서 기운을 얻은 베토벤이 이제 현실세계에 대한 기대를 접고 본격적으로 초현실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즉 인생은 괴로운 것이며, 풀이 승리하고 뿔이 패배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함 속에 한을 품은 채 끝날 수도 있



외한인 내가 처음 들었을 때도 계곡을 따라 굽이치며 평화롭게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양옆으로 우거진 숲에서 이 가지 저 가지로 옮겨 앉으며 짹짹거리는 새들을 그린 풍경화를 보는 느낌을 받는다. 두 귀가 멀정한 사람들이 못 들던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베토벤이 찾아내 들려준 것이다! 베토벤이 전원교향곡을 작곡할 때는 이미 禪의 高手의 경지에 들어가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때 석가모니가 베토벤을 만났더라면 큰 절을 했으리라!

[초대]

인문학 산책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낭만의 아크로 인문산책”이라는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같이 등산을 즐기던 대학 동문들이 등산반 대장이신 김동근(공대 '60) 강사를 모시고 매월 “한문학 시 강좌”를 개설한 것이 본 강좌의 모태가 됩니다. 그 후 김지영(사범 '68) 강사와 김학천(치과 '72) 강사가 이에 합류하여 그 해 9월부터 세 분이 매주 번갈아 가며 각각 두 시간 정도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동근 강사는 한문문학을, 김지영 강사는 영미문학을, 김학천 강사는 우리 문학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부 초청 강사들이 인문학 혹은 비 인문학 분야를 강의하시면서 본 강좌는 지금까지 83회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인류의 지혜이지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분야, 더 나아가서 예술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문학 사학 철학 등의 인문학이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몰락이 논의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급세기 들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문학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주지역에서 보아도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이나 애플 스마트폰 사업의 독창성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볼 수 있는 가치관 등의 저변에는 인문학의 입김이 은은히 서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시기가 온다 해도 우리 인류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가치관은

낭만의 ACRO 인문산책

바로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근 강사가 진행하는 한문문학 강좌는 우리 조상들의 작품은 물론이고 당나라 이백과 두보를 비롯한 중국 문인들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품들과 관련된 2000년 전부터 이어지는 역사나 동양고전이 주는 교훈을 얻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이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영 강사가 진행하는 영미문학 강좌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이르는 서양문화의 큰 줄기 이외에 미주에서 이름을 높게 날리고 있는 이창래 교수의 작품, Silk Road에 얽힌 동양인들의 진격의 역사, 북방민족의 확산, 중동지방과 문화, 인도의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되고 있습니다. 어느 강좌에서는 대학에서 충분히

히 한 학기 강의내용이 되는 것을 두어 번의 강좌에서 요약하여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김학천 강사님은 신라시대의 향가부터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초기의 우리 문학 그리고 한글의 창제로 발달한 가사문학, 시조문학 등의 발전과정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우리 현대문학에서 우

하시는 분들로서 “교포사회와 지식의 공유”라는 소박하고 신성한 사명감으로 평소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던 분야를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전혀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정 강사님들이 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강좌는 특정대학교를 위한 활동은 아니며 그 운영비는 전적으로 참석 한 회원들이 매월 내는 일인당 10불의 회비로 충당합니다.

강의 장소는 첫 강좌부터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 강의실’을 사용했으나 2015년 9월 강좌개설 일 주년을 맞아 3130 Wilshire Blvd, Room #303, Wilshire가와 Shatto 길의 코너에 위치한 가주국제대학교(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강의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간식을 준비해 오시는 열성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 덕에 저녁강의가 간혹 늦어져도 회원들이 시정함을 달랠 수 있습니다.

본 강좌의 취지에 공감하실 수 있는 강사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철학, 예술, 역사 및 인류학의 강좌가 갈망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310-292-2649 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본 강좌의 활동이나 회원들의 수강후기(review) 등은 인터넷에서 www.acroplistics.com 사이트에 들어가 ‘아크로 공지 게시판’과 ‘나누고 싶은 글과 생각’란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金弘默(문리대 61)〉
310-292-2649, hanthony@gmail.com

[영화]



박찬창 (인문대 79)

‘Life of Pi’에서 파이는 주인공인 14살 난 인도 소년의 이름. 원래 이름이 Piscine Molitor Patel인데, 발음이 오묘하다는 뜻의 pissing과 비슷해서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받다가 생각해 낸 이름이다. Piscine 말고 원주를 인 Pi 라고 불러 달라고. 그런데 인도 사람에게 원래 이름인 Piscine Molitor 는 또 뭐가? 프랑스 어로 Piscine 는 수영장이란 뜻이고 그래서 몰리터 수영장인데, 이 이름은 주인공의 아버지 친구 때문에 받은 이름이다. 수영 선수인 이 친구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몰리터 수영장을 가게 되었는데 수영장 물로 커피를 끓여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었다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 뇌리에 이 수영장이 진하게 남았고 둘째 아들을 낳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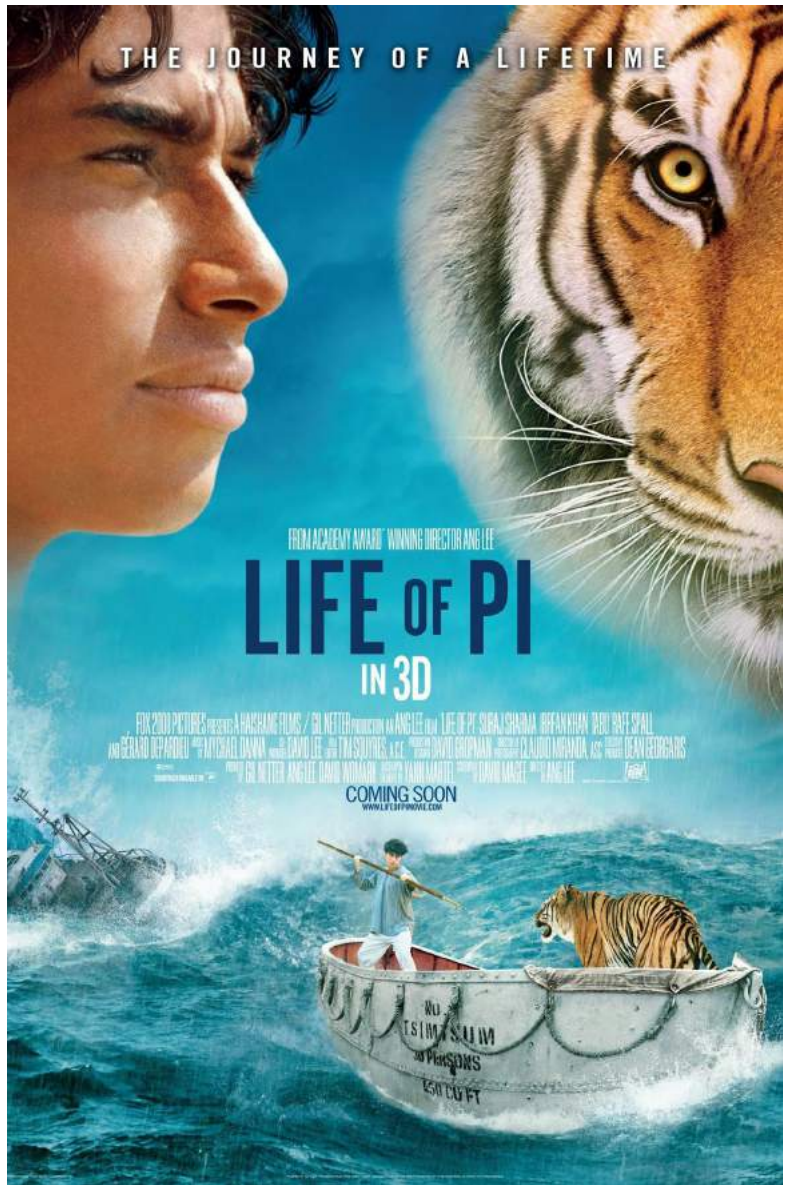
파이의 아버지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의 Pondicherry에서 동물원을 경영했다. 그리고 파이는 원래 행복한 힌두교도. 그런데 전지전능한 힌두교 신과 달리 삶이 찢어지고 인간들에게 조종을 당하는 야박하기 그지없는 이상한 신을 믿는 기독교에 끌려 기독교도가 되고 동시에 이슬람교까지 3가지 종교를 다 믿게 된다.

그러던 차에 파이의 아버지는 캐나다 이민을 결심한다. 안 팔린 동물들을 싣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배는 태풍을 만나 침몰한다. 가까스로 구명선에 올라 탄 파이. 파이는 생각 없이 뱀갈 호랑이를 구조해 준다. 이 호랑이 이름이 리처드 파커. 리처드 파커는 원래 이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인데 착으로 사냥꾼과 호랑이 이름이 뒤바뀐 것인데, 호랑이 이름 리처드 파커는 에드거 알란 포우의 소설에 나온다. 또한 리처드 파커는 실존인물이기도 한데, 배가 난파당한 후, 포우의 소설처럼 구명 보우트에 서 동료 선원들에게 살해당하고 신신 이 인육으로 먹힌 끔찍한 일을 당한 영국 법원의 판례도 있다.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데, 작가 Yann Martel은 포우의 소설과 이 판례에서 호랑이 이름을 착안했다고 한다.

작은 구명 보우트에 어떻게 채식주의자 14살 소년이 먹을 것도 없이 굶주려 있는 호랑이에게 안 잡아 먹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 파이는 노와 구명 튜브 등을 이용해 뗏목 같은 것을 만들어 일단 구명 보우트와 연결해서 호랑이로부터 떨어져 자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구명 보우트에 있던 생존 킷을 이용해서 무려 200 여일을 버티게 된다. 이 사이 낚시도 하고 적대적인 바다와 더불어 생존하는 법을 배운다. 채식주의자인 파이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잡아서 잔인하게 쳐 죽이고 날것으로 고기를 먹는 장면에서는 동정과 연민이 절로 배어져 나온다.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같으면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파이는 결국 리처드 파커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리처드 파커는 동물원 동물이었으니, 동물원 사육사가 했던 것처럼 호루라기 소리를 이용, 순종해야 먹을 것이 나온다는 것을 리처드 파커에게 주지시키고 서로의 영역을 지켜 줌으로써 호랑이와 공존한다. 후일 그는 리처드 파커에게 감사하는데 리처드 파커의 존재로 인해서 그가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보통 소설만한 영화가 없다. 그런데 이 작품만큼은 소설과 영화가 별로 차이가 없다. 소설과 영화 다 보기를 권한다. 소설은 소설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재미가 있다. 소설에서는 동물과 바다에 대한 통찰, 그리고 어떤 종교적 구원 같은 것도 넘치지 비추는데 깊은 맛을 보려는 분들에게는 소설이 좋다. 소설은 물론 한국어 번역판이 나와 있다. ‘파이 이야기’라고.

[문화산책]

칵테일 상식 - 시리즈 3



김창수 (약대 64)

위스키는 곡물(보리, 옥수수, 밀 등)에 엿기름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킨 1차주를 증류한 후 나무통에 넣어 숙성시킨 술이다. 위스키를 영어로는 Whiskey와 Whisky의 두 가지로 쓴다. 전자의 Whiskey는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사용되고, 기타의 위스키 생산국에서는 Whisky로 스펠링한다. 즉 American Whiskey, Irish Whiskey, Scotch Whisky, Canadian Whisky 등으로 쓴다. 위스키는 원래 동방의 증류 기술이 중세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서양에 전래되어, 후에 아일랜드를 거쳐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에 전파되었다.

아일랜드에서 위스키(Whiskey)가 처음 기록된 것은 1405년이고, 스코틀랜드에서 국가적으로 규제화된 위스키(Whisky)를 양조한 것은 1494년으로 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부시밀(Old Bushmill Distillery)은 1608년에 주류 면허를 취득한 가장 오래된 아이리시 위스키 양조회사이고, 스코틀랜드의 글렌터레트(Glenturret)는 1775년부터 위스키를 생산해서 가장 오래된 스카치 위스키 회사이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위스키가 건너 온 것은 1800년대 초라고 한다.

위스키는 그 원료에 따라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의 세가지로 나뉜다.

몰트(Malt) 위스키는 보리의 맥아(엿기름: Malt)를 발효해서 만든 술을 단식 증류기로 두 차례 증류 후 참나무 통에 장기간 숙성시킨 것이다. 그레인(Grain) 위스키는 보리맥아 이외의 곡물 즉 옥수수, 밀, 호밀 등을 발효하여 연속식 증류



기로 제조한 것이다. 보통 옥수수 80%와 보리 20%를 섞어서 만든다. 블렌디드(Blended) 위스키는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것이다. 블렌딩(Blending)하지 않고 한 가지 몰트 만으로 만든 위스키를 싱글 몰트(Single Malt) 위스키라고 한다.

위스키는 또 생산지에 따라 스카치, 버번, 캐나다인, 아이리쉬, 라이 등으로 분류된다.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라고 하며, 보통 줄여서 스카치(Scotch)라고도 한다. 미국의 위스키는 캔터키주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그 지역에서 위스키를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ey)라고 불러서 산지에 관계없이 미국산 위스키를 그냥 버번이라고 부른다. 버번은 불란서의 Bourbon 왕가에서 따온 이름으로, 캔터키주의 버번 카운티 혹은 뉴올리언즈의 버번 스트리트에서 유래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전자가 유력한 설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위스키는 자국산인 버번 이외에 수입품인 조니 워커 레드(Johnny Walker Red Label), 두어스(Dewar's White Label) 등이고, 우리 한인들은 조니 워커 블랙(Johnnie Walker Black Label)을 많이 찾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주전자에 옮겨져 따라 마셨다는 위스키는 12년산 시바스 리걸(Chivas Regal)이었다. 이들은 전부 스카치에 속한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2016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모교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이 지난 3월 21일 '2016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를 발표했다.

대상이 된 5개 분야 42개 학과 중 모교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학과는 16위를 차지한 현대언어학(영어를 제외한 언어)이었다. 세계 톱 10위 내에 든 학과는 없었으며, 현대언어학 외에 사회정책·행정학(17위), 재료과학(19위)이 20위권 내에서 선전했다. 모교는 기술공학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국내 대학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인문·예술 분야 8개 학과에서는 국내 대학이 순위에 들지 못한 고고학을 제외하고 8개 학과 모두에서 국내 1위를 기록했다.

의학·생활과학 분야에는 약학(21위) 부문의 약진이 돋보였다. 치의학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홍릉대는 이번 평가에서 아시아 대학으로 유일하게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수의학의 경우 국내 대

학과	순위	학과	순위	학과	순위
현대언어학	16	물리·천문학	35	철학	49
사회정책·행정학	17	법학	37	수학	50
재료과학	19	경제·개량경제학	38	간호학	51~100
화학공학	20	언어학	38	교육학	51~100
약학	21	정치·국제학	39	생명과학	51~100
화학	21	사회학	40	역사학	51~100
기계·항공공학	22	예술·디자인	40	영문학	51~100
치의학	28	컴퓨터공학·정보시스템	40	인류학	51~100
토목·구조공학	28	환경과학	40	지구해양과학	51~100
전기·전자공학	29	자원공학	42	지리학	51~100
커뮤니케이션학	29	회계·재무학	45	통계학	51~100
건축학	31	농·임학	48	심리학	101~150
경영학	33	의학	48		

※모교가 순위 안에 들지 않은 '수의학', '고고학', '개발학', '공연예술' 제외.
전체순위: <http://topuniversities.com/subject-rankings/2016> 에서 볼 수 있다.

학이 순위 내에 들지 못했다.

기술공학 분야 6개 학과 가운데에서는 자원공학(42위)에서 국내 1위를 기록했으며, 5개 학과에서 KAIST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미

국 MIT는 이 분야 5개 학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연과학 분야 7개 학과 가운데에는 5개 학과에서 국내 1위였다. 화학(21위)과 재료과학(19위)의 경우 각각 20

위와 18위를 차지한 KAIST를 바짝 뒤따랐다.

경영·사회과학 분야에서는 11개 학과 중 10개 학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개발학에서 모교는 순위 내에 들지 못하고 KAIST에 1위를 내줬다. 이 분야에서 영미권 대학은 경영학과 사회학, 경제/계량경제학, 법학 등에서 톱 10을 양분하다시피 하며 우위를 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아시아 대학 중 싱가포르국립대(NUS)는 10위 안에 13개 학과를 올리며 강세를 보였다. 도쿄대는 5개 학과가 톱 10에 들었으며,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는 각각 3개와 2개 학과가 들었다.

QS는 매년 상반기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학계 평가 ▲졸업생 평판도(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조사) ▲논문 피인용 수(지난 5년간 해당 학과의 논문이 인용된 횟수) ▲H인덱스(교수당 논문 수와 인용빈도수) 등4가지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외로운 여정’

남가주의 백정현(음대 66) 동문이 지난 4월 5일 캘리포니아의 Santa Monica를 출발해 뉴욕까지 장장 3,000여 마일을 Solo 바이크로 달리는 중이다. 5월 2일 현재 인디애나 주의 Bloomington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 약 1,000 마일쯤 더 가면 Big Apple 뉴욕에 도착하며 미대륙 횡단의 꿈을 성취하게 될 예정이다. 동문들의 성원을 바란다. 백정현 동문은 남가주동창회 박혜옥(간호대 69) 전회장의 부군이다.



[여행기]

지구의 끝이라는 아이슬랜드와 그린랜드를 가다



김명자 (문리대 62)

간과 같았지만, 자주 다니는 곳도 아니고 북회귀선에 가까운 지구의 끝, 몹시 추운 얼음의 나라로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주 멀게 느껴지는 듯 했다. 비자는 물론 우

JFK비행장에서 아이슬랜드의 수도인 레이카비크(Reykjavik)까지는 겨우 5시간 30분으로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가는 시

비교해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8월이라지만 북극권에 가까운 곳이라 세겹, 네겹씩 껴입은 옷들과 폭 내려 쓴 모자는 편안했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시계방향으로 섬을 한바퀴 돌아 볼 예정이었다.

화산과 용암으로 인해 생긴 이섬은 남한의 반 정도 되겠지만, 자연이 쉬지않고 계속 만들어 놓는 석호(Lagoon)의 형성은 놀라우면서 부럽기조차 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바닷물은 크고 작은 화산들을 모아와서 1-2미터가 넘는 길고 정연하게 견고한 돌담을 차곡 차곡 쌓고, 돌담이 다

공원 텅벨리르(Pingvellir)를 본 후 호텔(Icelanda)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완전히 본전을 다 뺐었다는 기분에 빨려들었다.

스내펠스요쿨(Snafellsjokull) 빙하는 ‘켈 베른’의 소설 ‘지구 속 여행’에 지구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묘사가 될 정도였다. 화산 분화구까지 올라가는 산길은 몹시 가파로웠는데 처음에는 있는 힘을 다해 내 체면을 살리고 넘어가는 몸을 시험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올라갔다. 물론 맨 뒤에 처져서 자연이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야 겨우더 높이 있는 2층 분화구로 갔는데 이곳은 커다랗게 화산이 폭발한 후 한참 있다가 작은 폭발이 또 있어서 생

었고, 뫼바튼(Myvatn) 뜨거운 유황온천에 앉아 내 피부에 살아있는 모든 균들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파란 하늘 아래서 수영복을 입고 아름다운 옥색물을 즐겼다.

아이슬랜드의 중부 내륙지역은 태초의 지구 모습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와 일년 중 4개월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의 원시 지대였는데, 어찌다 보이는 집들은 작았고 거의가 다 눈속에 서도 찾아보기 쉬운 빨간 색이었다. 화산이 터져나올 때는 큰 돌들이었지만 몇 만년 후에는 비 바람과 눈 그리고 덥고 추운 온도에 의해서 부식 작용이 일어나 작은 돌들이 되고, 2-3만년 후 이끼(moss)



리의 여권을 보자는 사람마저 없어 내 집을 드나드는 느낌으로 비행장 밖으로 나갔다. 이른 새벽이라 좀 싸늘한 듯 했으나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니었다. 비행장에는 먼저 도착한 팀이 있었고 18명의 여행객들과 아일랜드에 살고있는 (Ireland) 박윤영 안내와 보조원 김주영 양까지 20명의 오묘한 숫자였다.

아침식사를 할 틈도 없이 관광으로 나섰는데 66미터의 높이로 땅속의 뜨거운 물이 하늘로 치솟는 게이스르(geyser), 빙하 녹은 물이 강을 이루고 크고 작은 화산돌들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 골포스(gulfoss)는 장관이었다. 작으먼치 이 작은 섬에 3800개 이상의 폭포들이 있다니 놀라웠고 우리들은 몇개나 보게 될는지 흥미진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미국의 나이아가라(Niagara Falls) 폭포, 브라질의 이구아수(Iguazu Falls) 폭포(275개가 넘는다는 물 줄기), 아프리카 잠베지강에서 흘러 내리는 16개의 빅토리아(victoria Falls) 폭포를 보았기에 더욱 더

쌍여진 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큰 호수가 만들어진단다. 4,000-5,000년 쯤 지나면 호수의 물들은 증발되거나 비와 눈에 의해 담수가 되었다가 몇만 에이커의 큰 땅이 되고, 결국에는 넓고도 넓은 풀밭으로 변한다는 것인데 그로인해 일년에 이 나라의 땅은 3% 정도씩 면적이 커지고, 사진으로는 가능하지만 들락날락거리는 나라의 정확한 모양은 도저히 손으로는 그릴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국가 도로 일변(RT. 1)을 따라 가노라면 이런 석호의 형성과정이 여기저기 환연히 길에서도 보였고 더욱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특히 많은 피요르드(Fjords)에서는 계속해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빙하 녹은 물이 강을 이뤄 떨어지는 황금의 폭포 골포스(Gulfoss), 수 천만년된 물을 자랑하는 아이슬랜드 최대의 호수 핑바야 바튼(Pingvallavtn), 대자연의 지각활동을 증명해 보여주는 최초의 국립



긴 이중 분화구인 그라브록(Grabrok)분화구였다. 다음날의 가파른 산비탈 오르기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여행객을 위한 안내소(information Center)에서 아이스랜드에 관한 전시물과 영화를 보면서 대원에서 빠졌다.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었으나 나이 탓인지 너무나 숨이차서 호흡의 제한을 느꼈다.

20명이 탄 대형버스는 빈자리가 많았지만, 젊은이들이 매일 좋은 자리를 내주어 닥터 민 부부와 우리는 자리를 바꾸는 일 없이 호강을 했고 지금도 생각할수록 고맙다. 신이 사랑할 정도의 폭포, 고다포스 폭포(Godafoss)는 장관이었고 왜 신이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느끼게 했다. 거대한 화산 분화구를 자랑하는 흐베르펠(Hyerfell), 지옥으로 가는 불타는 언덕(Namqafjall), 뜨거운 땅 흐베리르(Hverir), 가장 최근 것으로 60여년 전 용암 분출로 이루어진 검은 용암의 땅 크라플라(Kraftla)에서 솟아오르는 증기에 손과 얼굴을 쬔여가며 많은 사진들을 찍

가 자라기 시작하면 진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좋은 카펫처럼 그 돌위에 이끼가 자라서 맨발로 밟으면 촉촉히 짠 양탄자위를 걸어가는 기분이었다.

흐바니스(Hvalness)해변의 검은 자갈들은 인상적이었는데, 납작하고 매끈매끈한 조각돌을 줍노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배처럼 보이면서 자동차 같기도 한 빙산 크루즈를 할 수있는 수륙양용차량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 이상한 각가지 모양들의 빙산들을 보았고, 가끔 물개들이 빙하위에 앉아 있는 경치와 수박만한 크기의 빙하 얼음덩어리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 만년된 얼음이라면서 작으마한 크기로 부셔서 우리들이 만지고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이날의 저녁 식사는 아이슬랜드에서만 자란다는 랍스터(lobster)였는데 큰 새우만한 크기에(두번째와 세번째의 손가락을 합친 크기)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주어진 양 열 두개를 먹을 수 있었고, 고래고기 스테이크와 여러가지 생선들은 항상 메뉴에 있었다. (1/2 계속)

이달의 사진

EXIF: Nikon D80, 1/200 sec, -0.33EV, F5.6, ISO 1250, 200mm spot



‘Humming Bird’ at Descanso Gardens, CA 김양희 (음대 77)

독자의 광장

총선의 준엄한 심판을 정치 거둬나는 계기로

56년전 이승만 정부가 온갖 부정선거 끝에 이승만·이기붕 당선을 공표하자 전국에서 시위가 시작됐다.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사체가 바다에 떠오르자 시위가 확산됐다. 서울대 4학년이었던 나는 4월 19일 100여 명의 교우들과 시위를 했다. 오후 1시쯤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실탄 충격이 시작되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송이 나왔다.

경무대로 가기 위해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자 총성이 들리고 왼쪽 손목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튀었다. 손등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손뭉뺄에 박힌 총알을 뺐고 귀가했으나 실신 상태의 통증과 아픔을 겪다가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결국 정권은 무너졌고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았다.

공천부터 4월 13일 투표까지 20대 총선을 지켜봤다. 새누리당 친박 세력과 당 대표 간의 힘으로 쉽게 짜이 없는 공천 싸움을 보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당 대표들이 국민 앞에 사죄한다며 줄줄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도 되나 참담한 비감과 분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었다.

총선에서 4·19 정신을 다시 보는 것 같다. 국민이라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일깨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박수를 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이하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준엄함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김태호(상대 57)·LA

6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uaa.org

Letter to the editor

좋은 기사가 많이 실려있는 동창회보를 받아 볼 때마다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회보 편집과 출판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히 다음의 제 소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메일을 드립니다.

이 동창회보를 받아보는 많은 미주 동창회원들은 다양한 전공,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독자들의 공통분모는 오직 서울대라는 캠퍼스에서 수학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창회보는 가급적이면 어느 그룹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사만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4 월호에 실린 몇가지 기사(아래)는 동창회보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선전에 이용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1) page-18: 기도하는 태도, 2) page-19: 사순절 --- , 3) page-23: 여행기

제 주변에는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자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동창회보는 특정종교 선전지가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자연대 81) 드림

박재현 동문님,
동문님의 건설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동창회보가 어느 특정 종교의 선전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정치인을 편드는 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매달 우리가 부딪치는 일 중에 하나가 원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개의 원고들 중에 취사선택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냥 보기에는 다양한 글들이 실리는 것 같지만, 막상 동문들이 보내오는 글들은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밝히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간신히 32면을 채우기에도 벅칩니다. 박재현 동문같은 분들이 열심히 원고를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배려받니다. 참고로 3월호 13면에 실린 모교 조은수 교수가 버클리에서 와서 ‘불교사상사 전개와 원효’라는 특강을 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도 어느 동문이 보내온 것이 아니라, 미주 한국신문에 실린 기사를 가져와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기사가 워낙 한개도 없었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해서 실은 것입니다. 박태현 후배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귀한 의견이라, ‘독자의 광장’에 실을까 합니다. 물론 편집회의를 거쳐겠지만요. 많이 도와 주세요. 실례지만 어느 지역(지부)신가요? 편집장 김정현(공대 68) 드림

편집장 선배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고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덜어 드리지 못해서 더 죄송합니다. 비판은 쉽지만 해결책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겠지요. 저는 테네시 지부에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장님의 고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의 지부에서는 일년에 두번 정기 모임을 갖는데, 회원들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모임때마다 회원중 한분을 초대해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동창회보에 기사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군요. 제가 이 곳 회장단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지부장으로서 백승준 동문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재현 드림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 (상대 56) Tel.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Link TV Media 김원택 (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CA 북가주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CA 남가주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치과 배윤범 치과 배윤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부동산 Teamspirity Realty Jennie Lee 이종욱(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식물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CA 북가주	광고문의: (484)344-5500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광고문의: (484)344-5500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건축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 (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內)

동물병원 / 치료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문의: (484)344-5500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RS Tax Exempt 번호-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계속)	정대광(공대 74)	최현태(문리 62)	박창익(농대 64)	캐롤라이나	김경덕(공대 75)	하트랜드	백산옥(문리 51)	김장환(공대 81)	최완주(공대 83)
정하람(약대 56)	한윤오(보건 70)	안장현(의대 55)	SC/NC/KY	서갑식(공대 70)	IA/MO/KS/	이상강(의대 70)	김태훈(공대 57)	최성호(문리 58)	
심희진(음대 90)	정홍택(상대 61)	허창기(약대 67)	이재덕(법대 60)	마동일(의대 56)	NE/AR/OK	이은미(자연 83)	박석규(간호 57)	탁순덕(사대 57)	
이성숙(가정 74)	조영현(수의 58)	현명익(공대 75)	송순영(문리 52)	이달호(사대 47)	구명순(간호 66)	임영신(의대 54)	박유미(약대 62)	허 천(공대 60)	
이지영(문리 67)	조영호(음대 56)	황선희(공대 74)	송용덕(의대 57)	이범세(의대 59)	김경숙(가정 70)	오재갑(의대 56)	신달수(공대 59)		
이지춘(미대 57)	주기목(수의 68)		전영자(미대 58)	이석형(사대 56)	하와이	김명자(문리 62)	정민재(농대 70)	이규진(약대 60)	
전무식(수의 61)	지재원(사대 68)	플로리다	정진목(의대 50)	이항별(법대 57)	HAWAII	김승희(법대 55)	최은관(상대 54)	이길영(문리 59)	
전병남(상대 73)	지흥민(수의 61)	FLORIDA	조동건(공대 69)	한광수(의대 57)	김승태(의대 57)	김재권(사대 68)		이영재(상대 58)	
전희군(의대 54)	차호준(문리 60)	김동한(문리 53)	최준희(의대 58)	손호민(의대 52)	신호민(치대 52)	도태영(치대 93)	휴스턴	이찬주(상대 63)	
정덕준(상대 63)	최종무(상대 63)	김중권(의대 63)	한기빈(공대 52)	테네시	유재호(문리 59)	도대영(사학 93)	HOUSTON	진기주(상대 60)	
정용남(문리 60)	최종문(공대 61)	문상규(의대 56)	황현상(의대 52)	TENNESSEE	최경윤(사범 51)	박정일(의대 66)	김동수(의대 60)	최관일(공대 54)	

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4월호부터 각 지부별로 기재됩니다.

후원회비:	홍진(간호 56)	500	송요준(의대 64)	200	유타		지부분담금:	서진(간호 56)	100,000	최무식(약대 66)	240	
	환만익(사대 59)	200	미네소타		김명혜(미대 77)	500	뉴잉글랜드	1,000	손재욱(가정 77)	2,000	최종문(상대 61)	240
	뉴욕		김영남(사대 53)	200	필라델피아		룩키마운틴	300	염동해(농대 74)	3,000	한상봉(수의 67)	240
	뉴욕 Chapter	2,000	시카고		김국강(미대 64)	200	Brain Network 후원금:	오상희(CA 50)	500			
	곽선섭(공대 61)	100	구행사(공대 69)	200	김금자(간호 63)	200	한재은(의대 59)	500	이창성(농대 76)	100	디자인 광고:	
	김영(수의 63)	500	김병철(공대 60)	200	오동환(의대 65)	100	김순주(치대 95)	200	임창희(공대 73)	1,000	김광호(물리 62)	9,000
	김종표(법대 58)	200	김중수(약대 64)	500	이용락(공대 48)	300	김종휘(의대 54)	200	이창성(공대 57)	250	김영민(농대 72)	1,000
	박범소(가정 70)	100	김기훈(상대 52)	200	최하수(문리 67)	100	송영덕(의대 56)	200	윤영자(간호 65)	500	김진웅(상대 74)	1,000
	박자경(사대 60)	200	김한중(의대 56)	100	조지아		윤경숙(문리 59)	3,000	장순열(사범 50)	100	김창수(약대 64)	300
	박종수(수의 58)	1,000	문석면(의대 52)	400	주승광(약대 60)	1,000	이만택(의대 52)	200	김순덕(간호 61)	500	김혜정(물리 82)	3,400
	백옥자(음대 71)	200	민준기(공대 59)	1,200	매리조나		이성숙(가정 74)	300	박종승(의대 56)	100	노명호(공대 61)	1,000
	양승문(공대 65)	200	손병우(문리 69)	200	바르샤제(약대 48)	200	이지춘(미대 57)	200	이원설(농대 77)	100	김순욱(의대 54)	240
	안혜정(가정 77)	100	신정택(약대 52)	200	오레곤		전무식(수의 61)	200	임영자(간호 61)	500	분당서울대병원	400
	염동해(농대 64)	500	양순우(법대 67)	200	김상순(상대 67)	200	전방남(상대 73)	100	김일영(의대 65)	100	국제진료센터	
	위중민(공대 64)	300	양정욱(약대 50)	200	오하이오		지흥민(수의 61)	260	김창수(약대 64)	240	서치월(공대 69)	1,000
	유재환(상대 67)	300	이강홍(상대 60)	500	최인규(공대 57)	200	정학량(약대 56)	260	김창수(약대 64)	240	유재환(상대 67)	1,000
	이건일(의대 62)	200	이윤순(의대 52)	200	워싱턴 DC		손재욱(가정 77)	25,000	박희진(농대 78)	240	윤상래(수의 62)	400
	이병선(상대 58)	500	이정자(간호 59)	200	강길종(약대 69)	200	최종문(공대 61)	200	이전구(농대 60)	500	신동균(수의 76)	1,500
	이병준(상대 55)	1,000	이재광(상대 61)	500	김진수(의대 60)	100	캐롤라이나		NE Chapter	100	이경림(상대 64)	240
	이 청(논대 61)	50	이준형(공대 48)	1,000	권철수(의대 68)	200	한광수(의대 57)	200	기타:		임낙균(약대 64)	1,500
	북가주		이홍빈(의대 57)	200	박평일(농대 69)	300	하와이		김영실	100	이병준(상대 55)	480
	강점수(문리 61)	200	조정현(수의 58)	325	백순(법대 58)	200	김승태(의대 57)	200	선행한예 장학금 기부차:		이상호(간호 80)	120
	임훈수(의대 57)	400	최한용(농대 58)	200	서유식(의대 62)	200	김창원(공대 49)	200	고광선(공대 57) 직접전달		이수호(보건 69)	240
	장정훈(미대 64)	100	최신행(의대 58)	200	오인환(문리 63)	200	하트랜드		권영달(문리 50)		이영일(문리 53)	400
	전삼욱(사대 52)	700	뉴잉글랜드		이선구(문리 65)	200	이상강(의대 70)	5,000	&이시환(문리 52)	200	이재필(법대 60)	240
	제영혜(가정 71)	300	박영철(농대 64)		이영목(공대 59)	200	이은미(자연 83)	200	김명순(간호 61)	500	이재원(법대 60)	200
	전현일(의대 77)	200	&정선주(간호 68)	2,000	워싱턴주		최은관(상대 54)	200	김순덕(간호 65)	500	이종보(간호 69)	240
	전동구(공대 57)	300	박종승(의대 56)	200	김성열(치대 61)	200	휴스턴		이준영(치대 74)	100	이창성(공대 57)	250
	하기환(공대 66)	500	룩키마운틴스		이원설(농대 77)	200	진기주(상대 60)	200	로렌스함(경영 ?)	500	정지훈(공대 64)	240
									바벌론(공대 53)	300	정지선(상대 58)	240
									박혜준(간호 69)	300	JG Business Link	500
											추기묵(수의 68)	240
											International, Inc.(이월드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귄)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심희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
조직국장	백옥자(음)	섭외국장	박형준(공)
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
IT개발지원장 (Webmaster)	김원영(미)	사무장	이제니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주필	정홍택(상)
편집위원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상숙(가정)		
	정덕준(상) · 정대광(공) · 이재원(사) · 차임경(가정)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송보현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호(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제37차 추동창회

Homecoming Day

방문단 모집

올해는 서울대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주최 10월 16일(일)에 있는 Homecoming Day 행사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Tel. 484-342-5500 Ext.302 또는 general@snuaa.org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Feb-Feb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NY/NJ/CT	회장	민준기(공대 59)	845.270.0451	joonmin1@yahoo.com	Jan-Dec
	차기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의인(공대 68)	781.862.5270	euinlee@verizon.net	Jul-Jun
	차기회장	홍지복(간호 70)	401.782.8000	hongjeebock@gmail.com	
달라스 LA/DALLAS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me.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IL/IN/WI/MI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e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OR/ID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mrmstf@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의대 53)	713.665.4819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강창석(의대 73)	770.825.1004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ul-Jun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xyx23yo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윤기형(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트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csg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cds@gmail.com	
휴스턴 HOUSTON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989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COTTMAN

Animal Hospital

Business Hours:

HMonday:	10:00 AM - 12:00 PM, 4:00 PM - 7:00 PM
Tuesday - Friday:	9:00 AM - 2:00 PM, 5:00 PM - 7:00 PM
Saturday:	10:00 AM - 2:00 PM
Sunday:	Closed

215-745-9030

Fax: 215-745-3055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Keep Your Pets the

Happiest and Healthiest

With Our Veterinary Services





Pet Treatment



Surgical Services



Pet Dentistry

Jay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he tree's branches feature the following logos (from top to bottom): Maeil, 이원홍, Jayone, Excelife, Sero Galt, 동차약품, 신대원, J1, and others.

SINCE 2000 ANNIVERSARY 15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서울대 동문 10% 할인

혼자이긴
아까운 당신

기쁜날 듀오

메 듀오
LA 213-383-2525
NY 201-242-0505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BLUE BELL FAMILY DENTISTRY

www.bluebelldentist.com

블루벨 패밀리 치과 • 예약 전화 610.278.1110



Dr. 박안국

U.PENN 치과대학 졸업(DMD)
Virtua Health, West Jersey Hospital 치과 레지던트 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Externship
Advanced Family Dentistry, Morton, PA 7년 근무
전 TEMPLE 치과대학 임상교수
대한 치과의사 협회 정회원



Dr. 김순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DDS)
U.PENN 치과대학 졸업(DMD)
Virtua Health, West Jersey Hospital Externship
한국, Philadelphia의 치과병원의 다년근무
Member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rthodontics
대한 치과의사 협회 정회원

진료과목



임플란트 / 송치치료 / 자주치교 / 산경치교 /
보형치교(크라운, 플라이) / 임플란트교정 / 투명교정(Invisalign)
치아미백/아인더, 청소년 치과

임플란트 전문의와 합진하여
최선의 기술로 정확한 진단과
전문화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곳

진료시간

월요일	8:30 AM - 4PM
화/목요일	10 AM - 7 PM
금요일	9 AM - 4 PM
토요일	9 AM - 3 PM

*** 수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블루벨 패밀리 치과



2022
대한치과
Grat
수백
주
치
간



**FAMILY
DENTISTRY**

저희 블루벨 패밀리 치과는
항상 친절함 상담과 진료 설명을 해드리며,
품목만 치료를 진료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화된 시설속에 청결한 환경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블루벨 치아인트수퍼 맞은편)

18th Anniversary



Durable · Efficient · Beautiful

창업 18주년을 맞이하는 터보에어 그룹은 세계적인 상업용 냉장고 생산업체로서 미 전역 18개 지사 및 물류창고, 7개의 계열사를 운영 중이며 미국, 한국, 중국에 위치한 5개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세계 53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Dallas, TX에 26 Acre 부지의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던 터보에어는 지난해 Long Beach, CA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6만 Sq.Ft. 규모의 초현대식 사옥을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보다 편리한 위치와 최신식 건물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서치원(공대 69)

Headquarters :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oll free: 800-627-0032

www.turboairinc.com